신소비층 '알봉족'을 잡아라

metro
메트로 2014년 3월 24일 월요일 www.metroseoul.co.kr



괴물 류현진 완벽투 뽐냈다

**단거리로켓 잇따라 발사 북한 왜 이러나?** 북한이 [illegible] 오전 0시[illegible]부터 1시21분까지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단거리 로켓 16발을 발사하는 등 주말 새벽에 이틀 연속 단거리 로켓 46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2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관광객이 망원경을 통해 북녘땅을 보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뉴시스

# 일괄 약값인하 '호령'에 속수무책

연중기획 다시 공정사회다 | 11 정부·보건의료계 '갑을' 관계의 불요약

##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방식도 교묘히 진화

# 지난 2012년 10월 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A제약사의 리베이트 수사 과정에서 '기프트카드깡'이라는 새로운 리베이트 방식이 등장했다. 영업사원이 제약사 법인카드로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후 상품권 취급소 등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기프트카드를 현금으로 교환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불법적이면서 교묘한 리베이트 방법이다. 당시 이 사건은 보건의료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줬다.

이런 리베이트 방식은 지난 2010년 11월 정부가 시행한 쌍벌제를 피하기 위해 시작됐다.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와 리베이트를 받는 병원과 의사 모두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지만 병원·의사와 '갑을'이라는 족쇄 관계에 묶여있는 제약사에 쌍벌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기프트카드깡과 같이 리베이트 방식이 시간이 갈수록 적발되기 어려우면서 지능적인 방법으로 변하고 있는 것뿐이다. 결국 리베이트가 등장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대신 당장의 필요와 강압을 전달한 정부의 행동이 보건의료계 갑을 관계를 유지시키고 있다.

◆ 을 위치 제약사는 정부 뒷?

지난 2012년 4월 제약업계에 태풍이 휘몰아쳤다. 53.55%에 이르는 '일괄 약가인하' 정책이 시행된 것. 하지만 제약사들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일괄 약가인하는 정부의 파워게임을 여실히 보여준 장면으로 당시 국내 제약사들은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 모여 유례없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여는 등 처음으로 정부에 과감히 반기를 들었다. 그렇지만 딱 여기까지였다. 이후 제약사들은 힘을 모으지 못했고 각자의 살 길을 찾는 데 급급했다.

결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과 같이 적극적인 반항을 한 제약사는 KMS제약·에리슨제약 등 약가인하가 시행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소규모 영세 기업뿐이었다. 매출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일방적인 '갑질'을 수용하고 '갑을' 관계를 잘 유지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앞서 아무도 나서지 않은 것이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 말 한마디 쉽게 할 수 없는 무서운 관계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큰소리 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갑을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만 오히려 제약사가 '만년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현재 정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제약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또 2012년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43곳을 선정한 후 제약 산업의 연구 개발(R&D) 및 해외 진출을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신약 R&D 투자를 [illegible]리는 기업에 ▲약가 우대 ▲R&D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된 적은 없다. 그렇다고 제약사에서 먼저 이의 제기나 지원을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물론 그들이 가진 불만을 솔직히 말할 수도 없다.

43곳 제약사들 중 15개 기업이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고 정부가 현재 리베이트 혐의가 있는 제약사 말고도 10여 개의 리스트를 확보했다는 점을 공공연하게 밝히며 제약사들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속을 안 지키는 정부의 눈치를 제약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3면에 계속>

## 65세 이상 운전자 40만여 명 교통사고 사망도 크게 늘어

고령자들의 사회생활이 늘어나면서 최근 서울 시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11년 31명에서 2012년 43명, 2013년 51명으로 늘었다. 올들어 1~2월에만 16명이 숨졌다. 서울 시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1년 430명, 2012년 419명, 2013년 371명 등으로 줄어드는 현상과는 대조된다.

경찰은 65세 이상 운전자가 2011년 32만2000여 명에서 2012년 36만5000여 명, 2013년 40만8000여 명으로 증가한 데 따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로 평일 오전 6시~오후 6시 시간대 주로 사고가 일어나고, 비사업용 승용차 사고보다 택시나 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량의 발생 비율이 높았다.

경찰은 이에 따라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을 찾아 교통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 등과 협의를 거쳐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고령 운전자임을 나타내는 '실버마크'를 자체 제작해 차량에 붙이도록 하고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법규 위반에 대해 예외 없는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유션준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더 많은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 핵 안보·통일외교 위해 출국

## 박 대통령 네덜란드·독일 5박7일 순방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 5박7일간의 네덜란드·독일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이번 순방은 핵안보와 통일에 방점이 찍혀있다.

박 대통령은 네덜란드에 도착하자마자 현지시간으로 23일 오후(한국시간 24일 새벽)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의 취임 후 네 번째 만남이자 올해 첫 만남으로 두 사람은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와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막 선도연설을 통해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 의 비전 아래 국제 핵안보 체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차례로 양자회담을 할 계획이다. 뤼터 총리와는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도 체결한다.

특히 25일 헤이그에서 미국이 중재하는 한미일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처음으로 마주 앉아 북핵 문제와 일본의 과거사 도발로 장기 경색된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탐색한다.

네덜란드 일정을 마친 박 대통령은 26일 독일 베를린으로 가 독일 통일의 상징이자 분단 시절 동·서독의 경계로 세계의 유력 지도자들이 방문하거나 연설했던 브란덴부르크문을 시찰한 뒤 오랜 친분을 쌓아온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27일에는 한스 디트리히 겐셔 전 서독 외교장관 등 독일 통일의 주역 인사 6명을 잇달아 만나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에 관한 조언을 들을 예정이다. 28일에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옛 동독 지역을 방문하고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유선준기자 rsjun@metroseoul.co.kr

**안철수-박원순 3개월만에 회동** 23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창당대회에서 박원순(왼쪽) 서울시장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원외고 전 교장·행정실장 유죄

대원외국어고 학부모들이 낸 학교발전기금을 애초 정해진 용도와 달리 대원중학교 시설 공사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의 전직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원외고 최모(64) 전 교장에게 벌금 300만원, 이모(57) 전 행정실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원외고 대원중 법인인 대원교육장학재단의 이모(80) 전 이사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대원외고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돼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할 학교발전기금 3000만원을 대원중의 시설 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설계 용역비로 쓴 데 대해 업무상 횡령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윤다혜기자

## 다이아몬드 사기 CNK대표 체포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년 넘게 해외에 체류해온 오덕균(48) 대표가 23일 새벽 귀국해 바로 검찰에 체포됐다.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CNK 임직원 20여 명과 주주 40여 명이 모여들어 소동을 빚기도 했다.

오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에서 "광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하고 곧바로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주주들은 "한 정치인의 권력 다툼에 희생양이 된 CNK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펴 보이기도 했다.

CNK인터 진실규명'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안모(41)씨는 "(주가조작 의혹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터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보도자료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 지분을 매각해 900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012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유선준기자

### 무재해 인증 유공자 등 표창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도원은 지도원 회의실에서 무재해를 달성한 대성산업가스(주) 등 3개 사업장에 인증패 수여와 함께 유공 직원을 표창했다.

무재해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17배를 달성한 대성산업가스(주)를 비롯해 3배를 달성한 (주)포스코건설 1배를 달성한 (주)검동실업이다.

뉴스 & 뉴스

### 기초의원·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

● 6·4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23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등록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인 5월 14일까지 계속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군수의 경우 200만원, 군의원은 4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 교육 분야 전수조사 나서기로

● 교육부가 23일 교육 분야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소관 법률과 시행령 등에 들어있는 규제 400여 개를 등재 '나쁜 규제'를 선별하고 교육청 소관 규제를 전수조사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와 독일 국빈 방문을 위해 23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환송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북한 주말 단거리 로켓 무더기 발사

## 어제만 2회 걸쳐 16발

북한이 주말 새벽에 이틀 연속 단거리 로켓을 동해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3일 오전 0시52분부터 2시21분까지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단거리 로켓 16발을 추가 발사했다. 2회에 걸쳐 로켓을 발사했으며 사거리는 60㎞ 내외로 분석됐다.

북한은 22일 새벽에도 동해로 단거리 로켓 30발을 발사했고, 16일에는 단거리 로켓 25발을 발사한 바 있다.

원산 갈마반도 쪽에서 발사된 이들 로켓은 모두 프로그(FROG) 지대지 로켓으로 추정됐으며 공해상에 떨어졌다. 이번에도 로켓 낙하 지점 부근에 항행금지구역 선포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연습(FE)에 대응하는 무력시위의 하나로 단거리 로켓을 계속 발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독수리연습에 참가한 한·미 양국 군을 겨냥한 일종의 심리전 성격의 전술 행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벽과 야간 시간을 택해 로켓을 무더기로 쏴 한·미연합군에게 피로감을 주겠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프로그 로켓 외 300㎜ 신형 방사포(4발), 240㎜ 방사포(3발), 스커드-B 미사일(4발), 스커드-C 미사일(2발) 등을 지난달 이후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새벽이나 야간 시간을 택해 단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있어 지금은 사실상 24시간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mjk@

## 경찰기동대 파출소서 야간근무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부터 경찰관 기동대 3개 부대 250여 명을 일선 경찰서 형사과와 야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2개 부대는 치안 수요가 많은 81개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야간 근무를 한다. 특히 112 신고가 가장 많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집중적으로 인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나머지 1개 부대는 10개 경찰서 형사과에 배치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2 신고 건수가 지난해 기준 233만 건에 달해 지난 2010년 211만 건보다 22만 건(10.4%)이나 늘어났지만, 지역 경찰관은 같은 기간 불과 243명밖에 늘어나지 않아 인력난이 가중되자 경찰관 기동대의 투입을 결정했다. /윤다혜기자

# 우편집배원 9년만에 늘린다

## 소포·택배업무 많아져 160명 증원키로

정부가 9년 만에 우편집배원 인원을 160명 증원한다. 우정사업본부는 23일 우편집배원을 160명 늘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정사업본부 상급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최근 우편집배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우편집배원 수를 대폭 증원하는 것은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하고 우편 배달보다 힘든 소포·택배 배송 업무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실제 소포 우편 물량은 지난 2004년 6471만4000통에서 2007년 1억1098만5000통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억327만5000통으로 2억 통을 돌파했다.

정부가 160명의 우편집배원을 증원할 경우 전체 집배원 수는 1만 2059명으로 늘어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우편 물량은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집배원 수는 증가하지 않아 원활한 우편물 배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편집배원 증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서울 경기 수도권 등 신도시 지역의 경우 우편 배달과 함께 소포·택배 등의 우편 물량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ㅁ태균기자 ksab@metroseoul.co.kr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촉구** 23일 오후 대학생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남단에서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3보 1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흉기·벽돌로 살해한 공익요원 체포

서울 서초경찰서는 2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공익요원 이모(21)씨를 체포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10분께 서초구 반포동 소재 5층짜리 빌라 주차장에서 김모(25)씨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자 미리 준비한 과도로 찌르고 주변에 있던 벽돌로 내리쳤다. 피해자 김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이씨는 부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2시간 가까이 대치하다 이날 오전 1시15분께 체포됐다.

피해자 김씨는 빌라 원룸에 사는 주민으로 귀갓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혜기자 yd@

## 김연아 주치의 의료소송서 패소

김연아 선수의 주치의로 알려진 의사가 의료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환자 이모씨가 의사 신모씨와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83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주사 위치, 깊이, 방향 등을 정확히 시술해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009년 11월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이씨는 한 재활병원 의사 신씨에게 매주 인대를 강화하는 주사를 맞았다. 하지만 2010년 1월 이후 인원 치료를 하고도 마비 증상 등 신경 손상 후유증과 피부 흉터가 남자 소송을 냈다.

/윤다혜기자

**차 없는 세종대로 벼룩시장**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가 운영된 23일 서울 광화문 육조 일대가 시민으로 북적이고 있다. 이날 외국인 주민의 의류, 책, 잡화 등의 물건을 사고 파는 외국인 벼룩시장이 올해 첫 개장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의약품 시장 질서 되레 왜곡

<1면에서 계속>

정부는 위법적인 마케팅과 불법 리베이트의 경계도 마음대로 결정한다. 특히 의약품 판매 후 안정성 및 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 검토하는 '시판 후 조사'에 대한 해석이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변호사 공증서가 있으면 합법적인 시판 후 조사가 된다고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로펌의 공증서를 보여주며 영업을 했던 한 제약사의 동영상 강의료 지급을 리베이트로 결정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처럼 정부의 입장과 말에 따라 제약사가 움직여야 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계 갑을 관계 부추겨**

지난 1월에는 종합병원들이 발 빠르게 제약사에 공문을 보냈다.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쓰자는 것으로 '재계약 견적 협조 요청' '인하 검토 부탁' 등의 문구를 통해 제약사를 압박했다.

또 납품하는 의약품 가격을 30% 이상 깎아달라는 언급이나 일괄적으로 의약품을 5원에 납품하라는 주문도 포함돼 있었지만 제약사들은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 거절하면 해당 병원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올해 2월 유예됐던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 구매 인센티브제)가 재시행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유통되는 의약품의 실제 가격을 알기 위해 이를 공개하는 병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으로 병원은 제약사를 압박해 의약품 가격을 내리고 정부에는 돈을 받아 배를 채우겠다는 단순하지만 최고의 전략을 세운 셈이다.

결국 피라미드의 가장 위에 있는 갑인 정부가 의약품 시장에서 '갑을' 관계인 병원과 제약사의 위치를 더욱 악화시켜 불공정 행위가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이다.

또 항상 갑을 관계의 주요 주제로 등장한 병원과 제약사 도매상의 '늑장 결제'의 폐해도 정부가 가로막고 있다.

지난 2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2년 연속 자리가 무산됐다. 병원들의 대량 도산을 막기 위해서란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지연 이자까지 더해 받을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이외에 별도 법을 만드는 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약 도매업계에서는 "갑을 관계가 명확한 곳에서 어떻게 공정위에 병원을 신고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한다. 병원을 신고하면 해당 병원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다.

/황재용기자 hsyu@metroseoul.co.kr

## 국악벨트 연결 돈화문 앞엔 '예술당'

서울의 남산~국악로~북촌이 '국악벨트'로 연결돼 한류를 이끄는 거리로 탈바꿈한다. 창덕궁 정문인 돈화문 맞은편에는 '국악예술당'이 건설된다.

시는 우선 국악전문공연장으로 한옥의 멋을 살린 국악예술당을 2016년 초 개관한다. 국악예술당 옆에는 전시·공연·퍼포먼스 등이 펼쳐지는 전통문화전시관이 들어선다. 이외에도 민요박물관·국악박물관·국악 종합정보센터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남산의 국립극장·남산골한옥마을·남산국악당을 시작으로 국악로의 국악예술당, 북촌의 북촌창우극장까지 거리를 국악벨트로 조성한다.

##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세균학자 코흐, 결핵균 발견**

1882년 3월 24일 독일의 세균학자 로베르트 코흐가 베를린의 생리학회에서 결핵균의 분리·배양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콜레라균과 탄저병균 등도 발견해 각종 전염병에는 각기 특정한 병원균이 있으며 그 형태를 서로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흐는 아프리카 지역병과 체체파리로 매개되는 수면병을 연구하고 이의 치료법도 밝혀 미생물학의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 1905년 결핵에 관한 연구로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 강북구 지구촌 전등끄기 참여

서울시 강북구는 29일 오후 8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2014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에 참여한다.

구는 당일 구 청사 및 동 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 도시관리공단, 문화예술회관의 실내 외 조명을 완전히 소등할 예정이다.

## 55세 이상에 IT 경진대회

서울시 구로구는 만 5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음달 2일 구로문화원 제1·2교육장에서 IT 경진대회를 실시한다.

시험은 정보 검색과 문서 작성이며 만 75세 이상, 65~74세, 55~64세 등 나이대별로 진행된다.

## 찾아가는 '자전거서비스' 운영

서울시 마포구는 지역의 16개 동 주민센터에서 11월까지 매달 한 번씩 '찾아가는 자전거 서비스 센터'를 운영한다.

자전거 안전 점검과 브레이크 기름칠·공기주입, 기어 세팅 등 간단한 경정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 우크라이나, 크림 국경 전면봉쇄

## 동부 도네츠크에서는 대규모 시위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가 러시아로 귀속된 크림공화국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입하는 인원 및 차량 통행을 전면 봉쇄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 등 현지 언론은 22일(현지시간) 크림 연방지구 관계자의 말을 인용,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가 이날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간 국경을 완전히 폐쇄했다고 전했다.

크림 연방지구는 러시아의 크림 병합 후 새로 지정된 대통령 관할 행정구역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올레크 벨라벤체프를 크림 지구 대통령 전권대표로 임명했다.

이번 국경 봉쇄로 러시아에 귀속된 크림을 떠나 우크라이나군에 남아있길 원하는 크림 주둔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이동도 차단됐다.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크림을 떠나길 원하는 우크라이나 군인에게 이동수단을 제공하라고 크림 주둔 자국 흑해함대에 명령한 바 있다.

러시아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크림에 주둔 중인 우크라이나 군인 1만8000명 가운데 약 2000명이 크림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크림 내 147개 우크라이나 군부대에 러시아 국기가 게양됐으며 우크라이나 해군 소속 군함 68척 중 54척에 러시아 해군기가 게양됐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한편 이날 친러시아 군인들은 크림반도 내 우크라이나 공군기지를 급습했다. 이 과정에서 총격이 일어나 최소 1명이 숨졌다.

우크라이나 공군기지 관계자는 "크림반도 항구도시인 세바스토폴 인근 벨벡 공군기지에서 친러 병사들이 총격을 가하고 수류탄을 투척했다. 장갑차로 기지 콘크리트 장벽도 부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크림반도 서부 노보페도리브카 시내에 있는 우크라이나 공군기지도 200여 명의 친러 시위대로부터 습격을 당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도네츠크에서는 러시아로 편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약 5000명의 도네츠크 주민들은 러시아로 귀속하는 것을 묻는 주민투표를 열자며 시위를 벌였다. 일부는 실각한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의 복귀를 요구하기도 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22일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한 남성이 우크라이나 진압 경찰 앞에서 러시아 정부를 지지한다고 외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악취로 마스크 쓰고 수업 '화제'

metro HongKong

최근 한 중국 네티즌이 학생들과 교사들이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고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화제다.

'마스크 수업'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은 학교는 저장성 원저우시 핑양현에 위치한 핑양중고등학교. 이 학교 주변에는 악취가 진동을 한다. 인근 공장이 두 달 전 유독 폐기가스 유출로 가동 중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몰래 가스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수업을 시작하면 기침이 나와 말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악취를 견디지 못한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받는다. 장즈이(蔣志毅) 교장은 관련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며 "새벽과 저녁에 악취가 더 심하다. 무슨 냄새인지 정확히 말은 못 하겠지만 전기를 태우면 나는 냄새 같다"고 말했다.

핑양현 환경국은 이에 대해 "담당 직원들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 중"이라며 "폐기가스는 학교에서 약 600m 떨어진 핑양 종합포장재공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공장 측이 폐기가스 배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밤중에 몰래 유독 가스를 유출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19일 오후 핑양현 인민법원은 이 공장의 생산을 강제 중지시켰다. 앞서 핑양현 정부는 지난해 말 오염을 처리 시설 없이 폐기가스나 분진 등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들에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이전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핑양중고등학교의 학생은 약 2600명으로 대부분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 주변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정리=조선미기자

# 친환경 이색 전기 자전거 등장 '주목'

metro France

프랑스에서 친환경적인 이색 전기자전거가 주목받고 있다.

'아이크바이크'라고 불리는 자전거는 독특한 생김새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알루미늄으로 된 자전거 프레임과 안장 아래에 있는 핸들, 그리고 앞바퀴보다 작은 두 뒷바퀴까지 모두 특이한 구조이지만 아이크바이크는 브레이크와 액셀레이터 기능도 모두 갖췄다.

리옹에 사는 세바스티앙은 스쿠터보다 더 환경적이고 힘이 적게 들어가는 교통수단을 찾던 중 이 자전거를 발견했다.

그는 "처음 본 순간 마음을 빼앗겼다. 10kg가량의 무게와 접을 수 있다는 장점에 2400유로(약 357만원)를 주고 샀다. 회사에 있을 땐 자전거를 접어서 보관한다"고 밝혔다.

아이크바이크를 타기 위해선 먼저 균형 감각을 배워야 한다. 안장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손잡이는 액셀레이터 및 브레이크의 기능을 하며 강한 엔진으로 시속 23km까지 달릴 수 있다. 3시간 30분을 충전할 경우 총 14km 주행이 가능하다. 아직 관련 법은 없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이색 교통수단인 세그웨이나 롤러의 경우와 같이 도보에선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리=가이아드 기자·정리=정주리 인턴기자

# 교황, 아동 성추행 대책위원 발표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동 성추행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교황청은 성추행 근절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할 8명의 창설 위원을 발표했다. 위원들은 고위 성직자와 사회운동가, 종교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성직자의 아동 성추행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은 물론 성직자의 행동강령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위원회가 아동 성추행자들을 은폐한 주교들의 처리 방안 등 민감한 사안들까지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교황청이 성명을 통해 '교회 소속 인사의 사회·교회에 대한 의무의 책임'을 살피겠다고 한 점으로 미뤄 위원회가 성추행 주교 관련 문제도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8명의 위원은 미국의 숀 패트릭 오말리 보스턴 대주교를 비롯해 교황청립 신학대인 그레고리안대학교의 신학교수 2명, 평신도 마리 콜린스 등이다. 아일랜드 출신 여성인 평신도 마리 콜린스는 열세 살 때인 1960년대 후반 신부에게 성추행당한 경험이 있다. 그는 이후 아동성추행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운동에 참여해왔다.

/조선미기자

# 칠레 북부 3곳 잇따라 지진

칠레 북부에서 22일(현지시간)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북부 아리카, 타라파카, 안토파가스타 지역에서 이날 오전 9시59분에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원은 북부 이키케시에서 서쪽으로 135km 떨어진 지하 31.8km 지점이다. 15분 뒤에는 이키케시에서 북서쪽으로 88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또 일어났다. 이후에도 이키케시 북부에서 두 차례 더 지진이 관측됐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조선미기자



# 日에 연행된 중국근로자 1000명 소송

제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 강제 연행된 중국인 노동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와 유족이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국인 강제 연행 피해자들이 지난달 미쓰비시머티리얼과 일본코크스공업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위안(약 1억7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이 18일 중국 법원으로는 처음으로 소송을 받아들였다.

원고 측 변호인은 소장에 기재된 원고는 40명이지만 현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와 유족이 1000명 가까이 되며 3000명 전후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원고 추가를 받아들여 이들을 강제 연행 피해자로 인정할 경우 일본 기업들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로 인해 향후 중일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선미기자

## 상의 '전국규제지도' 만든다

지난 20일 규제 끝장토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관리 감독과 소극적 업무 태도가 기업 활동 걸림돌로 지적된 데 따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규제지도'를 만들겠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전국 17개 시·도의 행정 시스템과 업무 관련 행태 등에 대한 지역 기업 체감도를 조사해 지자체별 규제 실태를 비교 분석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한상의 규제개선추진단 및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이른바 '골목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골목규제개선 TF는 조사 항목 개발과 조사 설계 등 세부 실행계획을 신속히 작성하고 이후 전국 5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규제에 대한 기업 체감도, 지자체 공무원 및 일선 행정기관(국세청, 노동청 등)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

## market index <21일>

| 코스피 | 코스닥 |
|---|---|
| 1,934.94 (+15.42) | 541.81 (+5.02) |

| 금리 | 환율 |
|---|---|
| 2.89 (+0.02) | 1070.90 (+4.80) |

# 한숨 돌린 은행 연체율 1% 아래로

### 지난달 부도업체 급감 영향 1월 이어 0.98% 유지 건전성 회복

은행권의 연체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건전성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난해 부진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2월 전국 어음 부도율은 3bp 상승했지만 부도 업체 수가 급감, 전체 은행의 연체율은 0.98%로 1% 밑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전월과 동일한 0.17%를 기록한 반면 지방의 어음 부도율이 0.35%로 다소 증가했다. 지방 어음 부도율이 높아진 이유는 경기 지역 특정 한 업체의 부도액이 400억원에 육박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전반적으로 전국 어음 부도 업체 수가 68곳으로 매우 낮았고 부도 업체 감소폭도 컸기 때문에 은행의 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의 경우 부도 업체 수는 40곳으로 2013년 월평균 52곳을 크게 하회했다. 부도 업체 감소 수도 22개 회사로 2012년 9월 이후 가장 컸다.

한편 1월 은행 연체율은 0.98%로 전년 1월 대비 19bp 감소했는데 이는 금융위기 이후 1월 중 가장 낮은 연체율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연말 상각, 매각에 따른 효과로 12월 연체율이 대체로 크게 개선되고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1월의 연체율은 올라가기 마련인데 1% 이하의 연체율을 기록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징후"라고 말했다. 경상적인 건전성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판단이다.

지난해 하반기 연체율이 7%대까지 급등했던 해상 운송업의 연체율이 6.39%로 눈에 크게 안정화됐고 그 외 주택담보대출과 집단중도금대출 연체율도 각각 0.63%, 1.23%로 매우 안정적이다. 기업대출의 1월 연체율도 1.19%로 금융위기 이후 1월 중 가장 낮은 수치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글로벌 우수 은행들과 비교해보면 한국 은행들의 부실 채권 비율은 매우 낮다"며 "정책적 역할 성향이 강한 우리금융을 제외하면 상장 은행들의 부실 채권 비율은 평균 1% 초중반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현방기자 shb@metroseoul.co.kr

## 10대그룹 '땅 재벌' 토지자산 첫 60조

국내 10대 재벌 그룹 상장사의 토지 보유액이 사상 최초로 60조원을 돌파했다.

23일 재벌닷컴이 오너가 있는 자산 상위 10대 재벌 그룹 소속 93개 상장사가 보유한 토지 장부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60조304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2년 말 57조5417억원보다 4.8%(2조7629억원) 증가한 것이며, 10대 재벌 그룹 상장사의 토지 보유액이 60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용도별로 공장 부지 등 업무용 토지가 2012년 말 49조8667억원에서 52조5115억원으로 5.3%, 임대 수익 등을 위한 투자용 토지가 7조6751억원에서 7조7931억원으로 1.5% 증가했다.

그룹별로 삼성·롯데·LG·두산·현대중공업·한진 등 6개 그룹이 증가한 반면 현대차·SK·한화·GS 등 4개 그룹은 감소했다. 현대차그룹(11개사)이 업무용 토지 11조9674억원, 투자용 토지 6503억원 등 전체 토지 보유액이 12조6177억원에 달해 조사 대상 그룹 중 가장 많았다. 현대차그룹은 업무용 토지와 투자용 토지가 0.5%와 2.6% 줄어 전체 토지 보유액은 0.6% 줄었다. /김민재기자 kmj@

알 찬 쭈꾸미 대령이오 신세계백화점이 전 점에서 봄 주꾸미를 28일까지 4900원(100g)에 판매한다. 주꾸미 제철은 3~5월로, 봄철에는 산란기를 앞두고 몸통(흔히 머리로 착각)에 알이 가득 차는데, 잘 데친 알은 희고 반투명하면서 쫀득한 맛이 쫄깃한 찹쌀 같다. /신세계 제공

# 역세권 아파트 '억' 소리 나는 인기 쭉~

### 청약 물론 입주후 가격 형성에도 호재 뚜렷

지하철역과의 거리에 따라 아파트의 청약 결과는 물론, 향후 시세까지 좌우되고 있다. 특히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수요자들이 주변 대도시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상권도 역세권을 따라 형성돼 역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최대 규모로 짓는 화성 동탄2신도시는 역세권 여부에 따라 청약 성적이 엇갈린 대표 지역으로 꼽힌다. KTX 동탄역이 도보 3분 거리였던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평균 5.58대 1의 청약률을 나타냈다. 비슷한 시기 동시 분양했던 동탄2신도시 평균 청약률 0.8대 1을 크게 웃도는 결과다.

판교신도시 마지막 분양 아파트였던 '판교 알파리움'은 96㎡ 이상의 중대형으로만 구성된 단지임에도 평균 25.8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적절한 분양가와 함께 강남역까지 14분 만에 도달하는 신분당선 판교역 역세권 중심 상업지구 '알파돔시티'에 위치한 게 인기 요인이었다.

분양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 입주 후 가격도 강세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판교의 경우 지하철역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판교 '산운마을 10단지' 전용면적 83㎡ 평균 매매가가 6억원인데 반해 신분당선 판교역과 가까운 동판교 '백현마을6단지' 84㎡는 7억6000만원에 이른다.

역세권 여부에 따른 가격 차이는 지방에서도 나타난다.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는 지하철 2호선 장산역의 거리에 따라 가격이 벌어졌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경우 대도시 외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역세권 여부가 주거 편의성으로 곧장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상반기에도 경남 양산신도시 '남양산역 반도유보라 5차'를 비롯해 위례신도시 휴먼빌, 마곡 힐스테이트 등의 역세권 아파트가 공급돼 눈길을 끈다"고 말했다. /이혜민기자 ...



## 두산重-서울대 '치과 봉사'

● 두산중공업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21, 22일 양일간 창원 본사에서 50여 개 사내 협력사 직원과 지역 홀몸 노인을 대상으로 사랑의 치과 진료를 진행한다.

서울대치과병원 봉사단장 김성균 교수를 비롯한 20여 명의 의료진과 두산중공업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참여해 행사 기간 중 발치, 충치 치료, 스케링 등의 진료를 진행한다.

진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두산중공업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부담한다. 두산중공업 이상규 경영지원총괄은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 한화그룹 상반기 신입 공채

●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24일부터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회사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5월 중하순경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며 한화그룹 채용 사이트 넷크루트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다. 한화그룹은 올해 상반기 중 55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상반기 공개 채용은 ㈜한화, 한화케미칼, 한화건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 11개사이며, 한화생명과 한화갤러리아 등은 5월경 인턴십 과정을 통해 별도로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7개 대학에 채용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지역 인재 채용을 늘리기 위해 충남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등 주요 지방 국립대에서도 설명회를 갖는다. /김민재기자

### 로또복권 (제591회)

| 1등 당첨번호 | | | | | | 2등보너스숫자 |
|---|---|---|---|---|---|---|
| 20 | 30 | 36 | 38 | 41 | 45 | 23 |

| 등위 | 당첨방법 | 당첨금(원) |
|---|---|---|
| 1등 | 6개 숫자일치 | 2,185,133,903 |
| 2등 | 5개 숫자+2등 보너스 숫자 | 82,236,117 |
| 3등 | 5개 숫자일치 | 1,595,815 |
| 4등 | 4개 숫자일치 | 50,000 |
| 5등 | 3개 숫자일치 | 5,000 |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5&2
TEL 02)721-9800 FAX 02)739-1551

| | |
|---|---|
| 발행인·회장 | 남궁호 |
| 사장·편집인 | 김종혁 |
| 편집국장 | 조인호 |
| 서울광고문의 | 02)721-9851~3 |
| 부산광고문의 | 051)959-2100 |
| 독자센터 | 02)721-9871 |

2005년 5월 9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 ...

# 구부러진 구릿값 상승 멀었나

## 올 최대 130만t 증산 예정 → "바닥 아직 아니야"

최근 구리 가격이 2010년 이후 최저점으로 떨어진 가운데 시장에선 구릿값 논쟁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구리는 이미 바닥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진 상태다. 20일(현지시간) 미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구리 선물 가격은 6센트(2%) 급락한 파운드당 2.9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처럼 구릿값이 연일 고꾸라지고 있는 것은 글로벌 구리 생산업체가 지난해 구리생산량을 전년보다 6%가량 늘린 데다 구리 최대 수요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아직도 구리 가격 논쟁이 거세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구리 가격이 바닥에 이르렀다"고 진단한 반면 미국 시티그룹은 "구리 가격이 앞으로도 8%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아직도 금값은 8% 가량 더 떨어질 수 있다"며 "아직 금값이 바닥에 도달했다고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 구리 생산업체들은 올해도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리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졌다.

칠레구리공사(코델코), 프리포트맥모런, 글렌코어 엑스트라다, BHP빌리턴 등 글로벌 광산업체들은 올해에도 생산량을 늘릴 방침이다. 시장조사업체 SNL파이낸셜은 올해 이들 업체들의 구리 증산량이 110만~130만t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2.5달러는 구리 생산업체들이 손익분기점으로 추정하는 수준"이라며 "광산업체들이 이때부터 생산을 줄이면 구리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지기자 minji@

# 싼 수수료 10년뒤 26% 이익

## 펀드온라인 차문현 대표가 말하는 '펀드슈퍼마켓'

"펀드슈퍼마켓은 2030세대를 타깃으로 한다. 대학생이나 직장 초년생들이 갈수록 재테크보다 빚테크를 많이 하는데, 자신의 능력 안에서 절약하고 모아서 돈의 기적을 이루도록 건전한 투자 문화에 앞장서고 싶다."

차문현(60·사진) 펀드온라인코리아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메트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달 개장 예정인 펀드슈퍼마켓은 장기 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를 강조한다"며 "돈은 장기 레이스이므로 젊을수록 돈을 아끼고 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통해 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펀드슈퍼마켓은 마트에서 여러 상품을 한 장바구니에 담듯 온라인상에서 각종 펀드를 고객이 직접 둘러본 뒤 선택해 가입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온라인으로 운용되므로 수수료가 은행이나 증권 등 기존 오프라인 판매사의 3분의 1 수준이다. 기존 판매사의 온라인 펀드 수수료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으로 책정됐다.

차 대표는 "온라인 펀드 판매망으로서 자리 잡기 위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다음달 개장하면 지난 17일 출시된 소장펀드의 수요와 맞물려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기존 판매사들이 온라인 펀드몰을 잇달아 개설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9년 전 기자주 펀드를 선보이며 시장에 새 먹거리를 만들어냈다. 그가 주목한 인덱스펀드 역시 시장의 주류 상품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그는 펀드슈퍼마켓에 저렴한 수수료가 큰 강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차 대표는 "펀드 판매사의 판매 보수와 판매 수수료가 적을 때 1~2년의 단기 투자로는 차이를 알 수 없지만 10~20년의 장기 투자로 가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된다"며 "수수료 1% 차이는 복리로 치면 10년에 26%의 수익률 차이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펀드슈퍼마켓은 투자자들이 기존 펀드 판매사에 미흡한 사항으로 지적됐던 애프터서비스도 대폭 강화한다.

투자자가 가입 후 변심하면 5영업일 안에 철회할 수 있으며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면 원금을 돌려준다. 고객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고정금리 상품으로 옮겨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차 대표는 "돈을 모으려면 버는 것보다 아끼는 게 더 쉬운 길"이라며 "마라톤처럼 쉬지 않고 뚜벅뚜벅 돈을 모으는 철학에 펀드슈퍼마켓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기자 bbm@metroseoul.co.kr

# 한화테크엠 中법인 출범

## 투자금 90억 100% 출자… 글로벌 전초기지로

한화테크엠이 중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한화테크엠(대표 김연철)은 20일 중국 강소성 장자강에서 한화기계(소주)유한공사의 사업 시작을 알리는 오픈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연철 테크엠 대표이사를 비롯해 한화차이나 금춘수 사장, 남부 케미칼 한상훈 상무 등 한화 계열사 법인장, 잠쉐이 장자강시 상무위원 겸 경제기술개발구 당서기 및 경제 개발구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한화기계유한공사는 투자금 90억원을 한화테크엠에서 100% 출자했고, 공작기계 및 파워트레인에 대한 생산 및 영업을 사업 내용으로 한다.

한화테크엠은 지난 2003년부터 중국 상하이에 사무소를 운영하며 공작기계, 자동차 변속기 및 엔진 조립라인 등을 수주해 왔다. 현재 자동차 변속기 및 공작기계 등의 중국 주요 수요 산업이 성장세에 진입, 이 시장에 대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게 됐다.

향후 장자강시와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법인을 통한 기술 지원 강화 및 영업 네트워크 등을 확대, 중국 내수시장에서 성공적인 사업 정착을 꾀하고 있다. /김태균기자

지난 20일 중국 강소성 장자강에서 열린 한화기계(소주)유한공사 출범식에 참석한 한화테크엠 김연철(왼쪽 넷째) 대표를 비롯한 사업 관계자들. /한화테크엠 제공



하성민(오른쪽 둘째) SK텔레콤 사장을 비롯한 SK텔레콤 임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20일 발생한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 대책을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 LTE급 대처 못한 통신 1위

## 이유 몰랐던 고객들 전화하고 또 하고 통화량 폭주 불러 피해 규모 9배로 키워

**Issue & View** SK 통화 장애 느린 대응

정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목요일 저녁이 택시 대목인데 손님을 받을 수 없었다. 이유라도 알면 다른 대책을 찾았을 텐데…"

국민 5명 중 1명은 한밤에 통화 장애를 겪었지만 5시간 동안 아무런 설명은 들을 수 없었다. 수화기 너머 '지금 거신 번호는 결번이오니…'란 기계음만 무심히 들렸다.

하성민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직접 대고객 사과에 나섰지만 SK텔레콤의 미숙한 초기 대응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사고가 터진 20일 저녁 SK텔레콤은 '일부 고객들에게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피해 규모, 대응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SK텔레콤 홈페이지 접속도 불통이었다. 목요일 저녁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부르려는 고객,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기사, 배달 물량이 밀린 택배원, 중요한 미팅이 있는 직장인 등은 알 수 없는 통화 장애로 유무형의 큰 손실을 입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갑작스러운 불편을 겪은 고객들의 'SKT 통화 장애 이유', 'SKT 통화 불통' 검색어로 도배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용량이 많은 오후 6시에 복구 작업을 하느라 통화 장애 규모가 더욱 커졌다. 정확한 고장 규명은 상당 시일이 걸릴 것 같다"면서 "자정 무렵에 통화 정상화가 이뤄져 고객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회사 수뇌부가 오전에 참여 오후에 곧바로 대응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SK텔레콤의 직접 피해자는 예상치 60만 명을 훨씬 뛰어넘는 560만 명으로 집계됐다. 시장점유율 50%대인 업계 1위 SK텔레콤 가입자 수가 2700만 명임을 감안하면 간접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진다.

하성민 대표이사는 이튿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20일 오후 6시부터 발생한 통화 장애로 고객 약 560만 명이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그동안 통화 품질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는데 이번 사고로 깊은 반성을 했다"고 고개를 떨궜다.

당초 SK텔레콤은 이날 네트워크부문장 등 관련 임원진을 중심으로 사고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으나 하성민 대표이사가 새벽에 소집한 임원회의에서 직접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피해 보상금 10배 수치, 각종 대응책 등이 결정됐다.

한 택시기사는 "목요일은 직장인 회식이 가장 많은 때로 택시업계 대목"이라면서 "손님이 제일 많을 시간에 통화가 안 되니 피해가 막심하다. 제대로 된 안내도 없었는데 보상금 지급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 산업이 커지고 관련 기술이 복잡해지면서 장비 관리에 더욱 비상이 걸렸다"면서 "SK텔레콤 통화 장애를 계기로 피해자 확산을 막는 초동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효성 태양광, 깜깜한 모잠비크에 빛

## 1.3MW 규모 발전소 준공

효성이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독립형 태양광발전소를 준공, 모잠비크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한다.

효성은 최근 모잠비크 북부 니아사주의 전력고립 지역인 마바고·무엠베·메쿨라 등 3곳에 1.3MW 규모의 독립형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준공한 태양광발전소는 지난해 3월 효성이 모잠비크 신재생에너지청(FUNAE)에서 수주한 것으로 아프리카 최대 규모다.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따라 3개 지역 4000여 가구 주민을 비롯해 인근 관공서·학교·병원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케 됐다.

효성이 모잠비크 북부 무엠베 지역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 /효성 제공

지난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에 따르면 모잠비크의 전력 보급률은 13.2%에 불과해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특히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형의 특성상 국가 전력망과 연계가 쉽지 않아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효성은 기존 전력망과 연계가 어려운 전력고립 지역에 독립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태양광발전소에 900kW/20MWh 급 전력저장장치(ESS)도 함께 공급해 낮 시간 동안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밤 또는 우기 등 태양광 발전이 어려운 시기에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프리카 내에서 이 같은 독립형 발전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효성은 이 지역의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효성은 앞서 지난해 루마니아에서 대형 태양광 EPC 프로젝트를 수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일정 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바 있다. 지난해 말 홍콩 전력청으로부터 수주한 400kW급 ESS도 올해 초 납품을 완료, ESS 해외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백흥건 전력PU장(부사장)은 "이번 태양광발전소의 성공적인 준공으로 아프리카 시장에서 효성의 태양광발전소 EPC 수행력을 다시 한번 검증받았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kkt1@

# 아깝다! '액티브X'에 막힌 역 해외직구

## '공인인증서 요구' 국내 온라인쇼핑 환경 외국인엔 '벽'…국민 80%도 "폐지를"

<주요국(美·日·中) 온라인쇼핑 시장현황 비교>

| | 거래액(억원) | GDP 비중 | 한국 대비 |
|---|---|---|---|
| 미국 | 2,051,225 | 1.24% | 5.17배 |
| 일본 | 1,007,340 | 1.60% | 6.67배 |
| 중국 | 1,313,712 | 1.63% | 7.00배 |
| 한국 | 25,070 | 0.24% | 1.00배 |

#1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생 A씨는 주로 맥북 컴퓨터를 사용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의 구형 노트북도 버리지 않고 있다. 수강 신청, 은행 거래는 물론 과자를 시킬 때조차 몇 개씩 깔리고 요구하는 액티브X의 불편을 감수하는 이유는 오직 마이크로소프트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이베이 등 해외 직접구매를 즐겨 하는 중국인 주부 B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선풍적 인기인 한국산 의류를 사려고 한국 인터넷 쇼핑몰을 방문했으나 미심쩍은 프로그램들을 한참 동안 깔고 난 후에도 본인 인증을 할 방법이 없어 구매는커녕 회원 가입조차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 에선 공인인증서와 인터넷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인 '액티브X(ActiveX)'에 대한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중국 소비자들이 한류 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드라마 '천송이 코트'를 사기 위해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액티브X는 본인 확인, 결제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 한국민 사용하는 특이한 규제로 전자상거래 국제수지 적자가 7200억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라인 시장이 미국의 5분의 1에 그치는 낙후된 현실이 액티브X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도 액티브X가 설치되야 쓸 수 있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창조 유통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액티브X 폐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쇼핑·은행 거래 시 걸림돌**

국민들은 인터넷 사용 시 반드시 내려받아야 하는 각종 액티브X로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8%는 액티브X로 인해 불편이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온라인 쇼핑몰 가입 및 물품 구매 79.1%, 은행 거래 71.7%,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 가입 38.3%, 연말정산 등 정부 서비스 27.3%, 해외 사이트 6.3% 순으로 응답했다.

**◆ 국민 80% 액티브X 폐지 찬성**

국민 대다수는 액티브X 폐지를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 78.6%가 폐지를 찬성한다고 응답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액티브X 폐지를 매우 찬성 또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경우는 6.7%(반대 5.0%, 매우 반대 1.7%)에 불과했다. 또한 84.1%의 국민들은 액티브X를 내려받지 않아도 안전하게 접속 또는 결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외국인에게 더 불편한 시스템**

액티브X 기반의 국내 인터넷 환경은 쇼핑몰 등 국내 사이트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매우 열악한 구조다. 국내 쇼핑몰 대다수는 액티브X 기반의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어 크롬,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국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는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대표적 IT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GDP 내 온라인 쇼핑 비중이 미국, 일본, 중국 등과 비교할 때 5분의 1 또는 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통의 전경련 산업본부 본부장은 액티브X가 창조 유통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이 시정될 경우 7200억원에 달하는 e커머스 국제수지 적자가 대폭 개선되고, 국내 온라인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하나기자 kimh@metroseoul.co.kr

**KT 매장서 갤럭시S5 체험하세요** KT는 신규 단말기 출시 전에 직접 체험해 보고 싶어하는 고객을 위해 삼성전자 '갤럭시S5'ㆍ'기어2'ㆍ'기어 핏' 을 전국 10개 매장에서 정식 출시 전까지 사전 전시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모델들이 23일 서울 종로 올레스퀘어에서 전시 중인 갤럭시S5ㆍ기어2 등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KT 제공

# 카카오처럼… 페북 '게임 플랫폼' 키운다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브랜드 페이스북이 동반성장 파트너로 게임을 지목했다. 게임 역시 최대 9억 명이 사용하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세계 최대 게임 콘퍼런스 GDC 2014에서 페이스북을 거친 게임 사용자들의 수치를 밝히고 점차 페이스북을 활용해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에 접속해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 수는 월평균 약 3억7500만 명이다. 또 페이스북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페이스북에 연동된 게임으로 유입되는 트래픽의 양은 매일 약 7억35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목할 점은 게임과 PC·모바일 기기, 페이스북을 모두 활용한 어른바 '크로스 플랫폼' 사용자가 단일 플랫폼 사용자보다 활동이 많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크로스 플랫폼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에서 모바일게임에 할애하는 시간은 모바일로만 게임을 이용하는 사용자 대비 약 2.4배 높고 PC만 활용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평균 1.5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즉 혼자 게임을 즐기기보다는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즐레이하고 점수나 미션을 같이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다.

이는 한국에서도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모바일게임의 경우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 게임하기' 플랫폼이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 게임하기에서 서비스를 하면 유저의 카톡 친구들과 같이 플레이할 수 있고 친구와의 순위 경쟁이라는 독특한 재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SNS와 게임이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게임은 페이스북의 핵심 콘텐츠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현승기자 ssn@

## 나들이철·선거시즌 알바 기지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과 선거철이 겹치면서 이색 아르바이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 구직 포털 알바몬은 한국민속촌과 함께 '2014 빛컴두조선' 행사(www.albamon.com/s/?1907bdc)에 참여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 특히 이번 알바 모집은 '조선에서 온 그대'라는 이름의 오디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거지 알바를 비롯해 한량, 기생, 포졸, 무사 등은 물론 지원자가 새로운 조선시대 캐릭터를 제안할 수도 있다. 30일까지 서류 접수를 통해 지원을 받은 뒤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인기 오디션, 현장 오디션 등 2차 오디션을 거쳐 선발할 방침이다. 근무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약 두 달이다.

민속촌 거지 알바 알바몬 제공

6.4 지방선거 관련 알바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등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보조 업무는 물론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다.

이 밖에 선거사무원, 여론조사, 투표소 설치 및 철거, 투표소 출구 조사 등 다양한 알바 모집이 늘어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희기자 kmkee@

## 슈피겐 폰 케이스 득템 기회

모바일 액세서리 글로벌 명품 브랜드 슈피겐SGP(대표 김대영)는 다음달 20일까지 오픈마켓 11번가를 통해 다양한 스마트폰 케이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11,000원 득템하라' 기획전을 실시한다.

슈피겐SGP가 11번가와 함께 진행하는 '11,000원 득템하라' 기획전은 갤럭시S4, 갤럭시노트3, 아이폰5S, G프로2, 넥서스5 등 고객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기종의 케이스 9종을 균일가인 1만1000원에 판매하는 행사다.

슬림하면서도 보호력이 우수해 호평을 받은 케이스로 기획전을 구성했고, 제품에 따라 40~60% 할인된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해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9종의 1만1000원 균일가 제품 이외에 다양한 스마트폰 기종의 케이스 및 액정보호필름, 강화유리 등을 최대 22%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김재군기자 ksat@

# 교대 운전땐 '단기특약' 가입하세요

## 봄나들이 가기 전 자동차 보험 점검해야…무보험차 사고 당했다면 정부 보장 이용을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나들이가 늘어가면서 자동차 운행도 크게 늘어가는 시기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운행의 필수 요건인 자동차보험 떠나기 전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상식을 체크해보자.

여행을 떠나다 보면 피곤할 때 부득이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 이때 걱정 없이 동승자에게 운전을 맡기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자정부터 종료일 자정까지만 보상 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미리 준비해놓자.

또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 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종합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리하다.

**◆위급할 때 유용한 손보사 긴급 출동 서비스**

운행 중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면 손보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 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자동차 긴급 출동 서비스는 특약에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되는데 ▲견인 서비스 ▲비상 급유 서비스 ▲배터리 충전 서비스 ▲타이어 펑크 교체 서비스 ▲잠금장치 해제 등이다.

안전한 여행이 최우선이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처리 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면 당황하지 않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긴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있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인명사고가 났는데 신고를 하지 않다가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사고 초기에는 스프레이로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 사고 현장 사진도 꼼꼼히 촬영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현장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하고 신호위반 등과 같은 사항은 추후 번복해 진술할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무보험차 사고 시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가능**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 자량 표식을 설치하고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섬광신호 등을 설치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또는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로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 사실을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보상금 청구서 및 진단서, 경찰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 제출을 통해 보장 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12개 손해보험사 본사, 지점 또는 보상센터로 보상금을 청구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박영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 "대학생 금융습관 길들이기 먼저"

### 금융가 사람들

**■ 김동하 금융감독원 팀장**

# 새내기 대학생 A씨는 지난해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1500만원(연 39%)을 대출받았다. 이후 고금리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던 그는 늘어난 채무의 속에 결국 대학 생활을 포기하고 말았다.

과도한 채무를 안고 캠퍼스에 첫발을 내디뎠던 A씨의 경우처럼 일부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꿈꾸던 연애와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해보기도 전에 고액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

지난 17일 메트로신문과 만난 김동하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운영팀장은 "이제 막 20세가 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자연스럽게 금융 거래에 발을 들여놓지만 적절한 금융 교육은 받지 못해 각종 금융 피해에 쉽게 노출된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을 알고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41개교, 4만8000여 명의 새내기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을 진행했다.

그는 특히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학자금 마련, 위험 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집중 교육하면서 금융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가장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최근 대학생들을 보면 금융에 관심이 많은 아들과 아예 관심이 없는 아들, 그리고 관심은 있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류로 나뉘는 것 같다"며 "금융이라는 것은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면 절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생에게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자금'의 경우 정부의 '든든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거나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을 이용하면 연 2.9%의 낮은 금리 또는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 학자금 대출자는 특히 군 복무 기간 약정 이자가 면제되기 때문에 더 든든하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실제 매년 등록금 납부 시기에 금융사기범들이 자금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노려 사기성 대출이나 다단계 업체 물품 강매 등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제3자가 장학금을 주거나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유혹하면서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사기범에게 속았더라도 직접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본인이 상환 책임을 지게 되고 피해 구제도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금융대출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국번 없이 1332)로 문의하라"고 강조했다.

/박미경기자 [illegible]

홈플러스 알뜰폰 사면 피처폰 무료 홈플러스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매장에서 플러스 모바일(홈플러스 알뜰폰) 전 요금제 상품에 가입하면 자체 개발 피처폰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홈플러스 제공

## 잠자는 예금·카드포인트 깨워라

### 알기 쉬운 금융 이야기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금과 카드포인트가 아직 겨울잠을 자고 있지는 않나요?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잠자고 있는 예금·보험금·카드 포인트 등이 무려 1조9731억원에 달했습니다. 소액 예금이나 카드 포인트의 겨울잠을 깨워볼까요.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오랫동안 방치해둔 소액 예금은 휴면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면 손쉽게 은행, 보험, 우체국에서 개설한 계좌번호와 금액 등을 조회 가능합니다.

가까운 은행이나 보험사, 우체국에 방문해도 알려줍니다.

다만 자신이 보유한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순 없습니다. 휴면계좌 정보는 2003년 이후 분부터 제공되며 청구권 소멸 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았거나 휴면보험금이 있는 계좌만 해당됩니다.

자신의 휴면계좌를 확인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 지급해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 지나치기 쉬운 카드 포인트를 알뜰하게 챙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드포인트 통합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www.cardpoint.or.kr)에 방문해 카드사별 카드 포인트 내역을 일괄 조회하면 자신이 가진 여러 장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잔여 포인트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 소멸 예정 시기까지 알려주니 차곡차곡 모은 포인트가 사라지기 전에 알뜰하게 사용하려면 반드시 들어가봐야 할 사이트입니다.

/김현정기자 [illegible] 도움말=금융감독원

###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된다. 현재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 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6개월로 줄어든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2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적으로 청약 접수 17곳, 당첨자 발표 8곳, 당첨자 계약 7곳, 견본주택 개관 4곳 등이 계획돼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25일 울산 남구 달동 '울산 번영로 코아루'의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아파트 전용면적 81~129㎡ 298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19~56㎡ 119실로 구성된다. 같은 날 서울 성북구 돈암동 '돈암 코오롱 하늘채', 대구 북구 침산동 '화성파크드림'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박선옥기자 [illegible]

# '후륜구동 느낌' 온몸에 밴 사륜구동

### 급가속·접지력 따라 동력 배분 빨라 충격 완화
### 중량 증가로 연비 손해 디젤과의 조합 기대

임의택의 차차차

■ 크라이슬러 300C

가끔은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믿고 구매하는 제품이 있다. 크라이슬러의 모델 중에는 300C가 바로 그런 경우다. 2000년대 초반 크라이슬러와 메르세데스 벤츠가 합병했을 때 개발된 이 차는 당시 벤츠 E클래스를 바탕으로 한 LX 플랫폼이 기반이 됐다. 크라이슬러의 가솔린 엔진과 벤츠의 디젤 엔진을 얹은 이 차는 탄탄한 섀시를 바탕으로 한 믿음직한 주행 성능이 일품이었다.

크라이슬러가 피아트에 인수된 이후에 나온 뉴 300C는 2011년에 한국에 소개됐다. 이번에 시승한 차는 3.6 가솔린 엔진을 얹은 4륜구동(AWD) 모델이다. 지난해 말에 한국에 처음 소개돼 300C의 라인업을 다양하게 해주는 데 일조했다.

엔진은 기존 모델 그대로 286마력의 최고 출력과 36.0kg·m의 최대 토크를 낸다. 여기에 능동형 트랜스퍼 케이스를 장착해 4륜구동 시스템을 완성했다. 평상시 주행은 기존 모델처럼 후륜구동의 느낌이다. 그러다가 급가속이나 접지력의 변화가 생겼을 때 앞바퀴로 동력을 배분해 접지력을 높인다. 구동력 배분은 매우 재빠르게 이뤄지고 큰 충격이 없다. 완성도는 기대 이상이다.

후륜구동에 비하면 115kg이 무거워졌는데,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큰 변화를 느끼기 힘들다. 4륜구동의 구동력 배분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는 덕분이기도 하다. 핸들링 역시 후륜구동 모델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무거워진 자체 중량 때문에 연비에서는 손해를 봤다. 표시 연비는 도심 7.6km/ℓ, 고속도로 11.3km/ℓ, 복합 8.9km/ℓ로, 후륜구동 모델(도심 8.1, 고속도로 12.1, 복합 9.5km/ℓ)에 비해 떨어진다.

이런 결과는 300C 디젤 모델과 4륜구동을 조합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실제로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등은 디젤 엔진과 4륜구동을 조합한 모델을 활발히 내놓고 있다.

300C AWD의 가격은 6640만원. 독일 동급 경쟁차에 비하면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현대차에서 제네시스 4륜구동 모델(4910만~7210만원)을 출시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됐다.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크라이슬러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다. 수입차 중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서비스 만족도를 개선하는 것도 시급하다.

/자동차전문기자 ferrari@metroseoul.co.kr

▲한 줄 평가: 주행 안정성이 더욱 좋아졌다. 연비는 썩 좋지 않다

▲평점: ★★★★(별 다섯 개 만점)

# 굼뜨고 시끄럽던 말리부 촌놈 '디젤 신사'로

### 오펠 엔진+아이신 변속기
### 비싼 유럽차와 경쟁할 만

국내 소비자들이 중형차를 고를 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승차감과 안락성이다. 이런 이유로 국산 디젤차는 그동안 수요가 크지 않았고, 기술적으로 앞서있는 유럽산 디젤차가 주목을 받아왔다.

한국GM이 이번에 선보인 쉐보레 말리부 디젤은 그런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모델이다. 기존 가솔린 모델과 가장 큰 차이점은 파워트레인이다. 독일 오펠의 카이저슬라우테른 파워트레인 공장에서 생산되는 엔진은 최고 출력이 156마력이다. 폭스바겐 파사트 TDI보다는 높고, BMW 320d·520d와 메르세데스 벤츠 C220·E220 CDI, 폭스바겐 CC TDI보다는 낮은 출력이다. 최대 토크는 1750~2500rpm 사이에서 35.8kg·m가 발휘된다.

한국GM은 여기에 기존 국내에서 생산되던 변속기 대신 아이신의 6단 자동변속기를 조합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파워트레인 담당 박범완 부사장은 "오펠의 디젤 엔진과 더 잘 맞았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설명한다.

공회전 상태의 진동과 소음은 기대 이상이다. 스티어링 휠로 전해지는 진동이 거의 없어서 가솔린 모델과 구분이 안 갈 정도다. 출발도 가뿐하다. 디젤 모델은 보통 초기 가속이 굼뜨기 마련인데, 이 역시 의외다.

아이신 변속기는 엔진과의 궁합이 착착 맞는다. 엔진 회전 수를 올리면서 속도를 높일 때의 연결이 매우 부드럽다. 말리부가 처음 나왔을 때 한 박자 느린 변속이 지적된 것에 비하면 놀라운 차이다. 가속페달을 70% 정도까지 밟으면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

수동 변속 기능도 적절한 시점에서 반응한다. 문제는 변속기의 조작성이다. D(드라이브) 모드에서 M(매뉴얼) 모드로 바꾼 후 토글 스위치를 이용해 수동 변속 모드를 쓸 수 있는데, 이 점이 불편하다. M모드로 바꿀 경우 변속기의 위치가 운전자의 몸 뒤쪽에 자리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변속기 위에 달린 스위치를 손가락으로 조작해야 변속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탓이다. 토글 스위치는 밋밋한 디자인이어서 좌우 구분도 되지 않는다.

말리부 디젤의 엔진은 미국 워즈오토가 선정한 2014년 10대 엔진에 선정된 유닛이다. 동급 배기량에서는 유일한 데다 몇 안 되는 디젤 엔진이다. 시승을 해보니 그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간다. 말리부는 기본적으로 하체 강성이 좋고 차체 밸런스가 뛰어난 차다.

표시 연비는 복합 모드에서 13.3km/ℓ, 고속도로 15.7km/ℓ인데, 이번 시승에서는 14.8km/ℓ를 기록했다. 국도를 주로 달렸지만 급가속도 시도했기 때문에 주행 여건에 비하면 좋은 연비다.

디젤 가격은 2703만원부터 시작해 2425만원부터인 가솔린 모델보다 약간 높다. 비슷한 성능을 갖춘 유럽산 디젤 중형차에 비해 1000만~2000만원 정도 낮은 가격이다. 이 정도면 값 대비 가치가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임의택기자

< 럭셔리 중형 세단 중고차 시세 >

(단위: 만원)

| 제조사 | 차종 | 2009년식 | 2010년식 | 2011년식 | 2012년식 | 2013년식 |
|---|---|---|---|---|---|---|
| 현대 | YF쏘나타 | 1,330 | 1,360 | 1,450 | 1,750 | 1,960 |
| 기아 | K5 | | 1,480 | 1,590 | 1,880 | 1,940 |
| 르노삼성 | 뉴SM5신형 | - | 1,330 | 1,350 | 1,680 | |
| 쉐보레 | 말리부 | - | - | 2,020 | 2,120 | 2,260 |
| 벤츠 | 뉴C클래스 | 2,990 | 3,040 | 3,180 | 3,660 | 3,970 |
| BMW | 뉴3시리즈 | 2,620 | 2,810 | 3,030 | 3,760 | |
| 아우디 | 뉴A4 | 2,460 | 2,520 | 2,900 | 3,300 | 3,750 |
| 렉서스 | IS | 2,270 | 2,450 | 3,040 | 4,630 | |
| 폭스바겐 | CC | 2,390 | 2,590 | 2,960 | 3,040 | - |
| 캐딜락 | 올 뉴 CTS | 2,260 | 2,700 | 2,740 | 2,940 | 2,950 |

/자료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 발상의 전환…오키나와 영화제

뉴스룸에서
유순호 <연예스포츠부 차장>

일본 최남단의 휴양지 오키나와현 일대에서 열리는 오키나와 국제영화제는 시작 계기와 운영 방식 등의 면에서 전 세계 무수한 영화제와 차별화돼 있다. 태평양전쟁 당시 24만 명이 희생된 아픔을 품은 지역에 치유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웃음'과 '평화'를 기치로 내걸고 시작한 코미디 영화제다.

이 영화제는 정부나 오키나와현의 지원을 받지 않고 일본 연예기획사인 요시모토흥업이 주관한다. 이 때문에 영화제만의 딱딱한 형식이나 근엄함을 피할 수 있다. 철저히 관객 참여형 축제를 표방해 영화 상영만을 하지 않고 요시모토흥업 소속 코미디언 600여 명이 오키나와에 집결해 공연을 한다. 이 때문에 영화제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오사키 히로시 요시모토흥업 대표는 "일본에만 100여 개의 영화제가 있지만 엄격한 곳에 우리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6회째를 맞는 올해는 규모와 관객의 참여가 더욱 커져 이 영화제만의 특화된 장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오키나와영화제가 이 같은 개성을 뚜렷하게 갖출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요시모토흥업의 상장폐지다. 오사키 대표가 취임한 지 2년 만에 내린 결정이다. 올해로 103년의 역사를 이어온 요시모토흥업이 상장한 지 약 50년 만인 2010년 자발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자 당시 일본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부산국제영화제와 맞먹는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오키나와영화제는 매년 적자를 보였고 요시모토흥업 주주들의 반발은 커져갔다. 하지만 영화제 설립 목표를 지키겠다는 뚝심 하나로 회사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장폐지라는 '용감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투자금 유치가 이전만큼 원활하지 않지만 요시모토흥업은 여전히 일본 최대 규모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주주의 눈치와 압력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보다 실험적인 시도로 대중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오키나와영화제가 한창인 요즘 국세청이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으로 국내 연예계가 뒤숭숭하다. 다른 기획사들도 역풍을 맞을까 마음을 졸이고 있다. 요시모토의 상장 폐지가 목적을 잃고 흔들리는 우리 연예계에 주는 교훈이다.

## '규제개혁' 공무원의 마음가짐에 달렸다

정론직설
유병팔 <언론인>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드디어 7시간에 걸친 끝장토론까지 벌였다. 지난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회의에서 매우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 "규제 개혁 성과는 결국 공무원에게 달려있다"면서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면책해 주고 이신과 승진 인사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016년까지 등록 규제 1만5269건을 1만3069건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로 보아 규제 개혁은 이제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으로 몇 년간 20% 정도의 규제를 줄인다고 해도 규제 개혁과 전쟁을 치르기 시작한 김영삼 정부 이전인 1986년의 1만185건보다도 양적으로 많다. 문제는 건수 위주로 대처하기보다는 규제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세에 더 주목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의 공무원에 대한 시각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는 물론 부처이기주의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규제 개혁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훈령 아니라 규제법령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예규 등이 도사리고 있다. 여기에다 지자체별로 각종 조례를 만들어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무원의 자세는 대체로 '면피 위주'에다 포지티브 방식의 무사안일로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따라서 규제 개혁의 실효를 거두자면 공무원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가급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 조성이 절실하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밝힌 공무원 평가 기준을 구체화시켜 실행해야 한다. 연공 서열 방식도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상벌제도 역시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잘못한 것만 골라 책임을 묻는 필벌(必罰)보다는 잘한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 상을 주는 신상(信賞)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대민 업무에 솔선수범하고 창의력을 발휘해 훌륭한 성과를 올렸을 때에는 파격적인 승진제도도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루한 저성장의 터널을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한다. 그러자면 다른 어느 분야보다 경제 발전과 함께 규제 개혁으로 공공 서비스 혁명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포토프리즘** 서울의 랜드마크 탄생

지난 21일 서울 신당동 옛 동대문운동장 부지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새롭게 개관했다.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이 건물을 구경하기 위해 이날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문전성시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손진영기자

## DDP 개관 첫날부터 혼선

기자수첩
조현정 <정치사회부 기자>

옛 동대문운동장 부지에 들어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착공 5년 만에 지난 21일 문을 열고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이 건물은 소요 비용만 4840억원으로 '세계 최대의 랜드마크 건축물'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혈세 낭비'와 '보기만 좋은 건물'이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시끌벅적했던 홍보로 인해 기대가 높았던 만큼 개장 첫날부터 운영 미숙으로 관람객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건물 내 안내표지판이 없어 관람객이 혼동을 일으켰고, 유선형 구조로 설계된 둘레길의 바닥과 벽면, 천장이 모두 흰색이며 창문도 없다 보니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다.

내부가 비슷하게 생겨 구분도 쉽지 않은 탓에 출구를 찾지 못해 헤매는 관람객들의 모습도 적지 않았다. 지나치게 예술성을 강조하다 보니 내부를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개막 당일 엄청난 인파가 몰린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것은 확실해 보였으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말도 여실히 보여줬다.

건물 밖 한쪽에서는 동대문 상가 철거민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DDP 건설 사업으로 쫓겨난 상인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호소했다.

노점상들의 생존권 문제도 DDP와 연계돼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DDP가 향후 서울의 랜드마크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 "아버지, 나 그리고 홍매"

인문학 산책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무대 위에 올려진 시골집은, 흑백사진 같은 풍경이다. 그것은 고향이면서도 더는 고향이 아니며 우리의 집터였으면서도 더는 우리가 사는 집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래전 그곳을 떠나왔고 어느 새 그곳은 낯선 곳이 되어버렸다. '시골집'은 홀로 버려진 과거다.

그런데 그것은 다만 풍경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던 체온을 언젠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어느 길에 떨어뜨렸는지 도통 생각이 나질 않는다. 우리는 서로 뒤엉키면서 끈끈하게 나누는 정을 옆으로 밀어제친 지 꽤 되었으며 서로의 삶을 보듬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풍습도 고리짝에 놓고 자물쇠를 잠근 지 한참이 되었다.

신구와 손숙 주연의 연극 '아버지, 나 그리고 홍매'를 보는 내내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자국이 세월이 흐르면 다시 회한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해진다. 부모와 자식, 형제가 서로 주고받는 마음이 어느 날엔가는 추억이 되고 그건 때로 가슴을 저미게도 하고 때로 우리의 영혼을 울컥하게 한다.

세월이란 그렇게 지나쳐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부르면 다시 돌아와 그날 그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애타는 마음이야 어찌하겠냐마는 우리의 가슴에 죽어 사라지는 것은 그래도 결국 없게 된다. 신구와 손숙은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 무대 위에 모신 사제가 된다. 연륜이 깊어진 연기는 역시 연기가 아니라 삶 자체가 되는 것을 또한 절감한다.

늙고 병든 아버지는 적막한 밤의 시간들을 보내며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 몸은 굳어지기만 하고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존재 자체가 점차 모두에게 부담이 되어가고,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에게 자명해져가고 있다. 늙은 아내 홍매는 언제 한번 제대로 정답게 대해준 적 없이 그렇게 떠나갈 채비를 차리는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인생의 힘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린다. 아니던가? 우린 누구나 할 것 없이 언제나 그렇게 뒤늦게 깨닫는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마당 한 가운데 서 있던 매화나무에서 붉은 홍매가 피어난다. 아픈 세월이 닥쳐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꽃이 핀다.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을 주신 모든 부모님들이 이 봄에 피는 홍매로구나. 벌써 따스하다.

# 엄홍길휴먼재단 '무료 인공관절' 후원

## 저소득층 노인 퇴행성관절염 환자 전화·인터넷으로 수술비 지원 신청 접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퇴행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중 퇴행성관절염은 우리가 움직이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관절에 발병하는 질환으로 60대 이상의 약 70% 정도가 겪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퇴행성관절염은 무릎, 발목 또는 어깨 등 관절이 있는 부위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무릎관절은 체중의 부담을 모두 견뎌내야 하므로 다른 관절보다 손상되기 쉽고 상황에 따라 퇴행성 변화도 빨리 찾아올 수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과거에 비해 최근 4년 동안 약 35만 명이나 증가한 바 있다. 그만큼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말기환자 인공관절 치료제약

퇴행성관절염은 뼈와 뼈 사이 존재하는 연골이 충격에 의해 손상되거나 마모돼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무릎에 미세한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고도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통증이거나 생각하고 질환을 참다 병을 더 악화시킨다.

퇴행성관절염을 초기에 발견한 초·중기의 상태라면 줄기세포 치료를 이용한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줄기세포란 우리 몸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세포의 근원이 되는 어린 세포를 말한다. 본인의 몸에서 지방이나 골수를 채취해 이용하거나 타인의 제대혈(탯줄 혈액)에서 추출해 만든 줄기세포 주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 내 몸속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부작용도 적고 치료 및 회복 기간도 짧아 환자에게 가는 부담도 적다.

그렇지만 말기 환자라면 얘기가 다르다.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퇴행성관절염 말기라면 연골이 이미 닳아 없어져 뼈와 뼈가 맞닿은 상황까지 질환이 진행됐다고 할 수 있다. 심하면 무릎 모양이 O자형으로 변형되고 붓거나 물이 차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길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닳아 없어진 연골을 인공 구조물로 대체하는 인공관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이 된다.

◆경제적인 부담 탓 포기 그만

최근 퇴행성관절염 초·중기에 질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또 줄기세포 치료는 도입 이후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면서 관절염 치료의 새로운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줄기세포 치료가 최신 치료법인 만큼 환자가 내는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이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해 엄홍길휴먼재단이 후원에 나섰다. 엄홍길휴먼재단이 저소득층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에게 '줄기세포 치료 무료수술 캠페인'을 펼치며 희망을 전달하고 있는 것.

엄홍길(사진) 대장의 의지에서 비롯된 이번 캠페인은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만 했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엄홍길휴먼재단이 이번 후원을 주관하며 무릎 퇴행성관절염 치료 대상자 접수를 받고 있다.

엄홍길휴먼재단의 엄홍길 상임이사는 "줄기세포 치료가 퇴행성관절염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음에도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웠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완쾌하고 건강한 삶을 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치료 후원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 전화: 02)2272-88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 캠페인 담당자)

- 인터넷: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우측 후원 캠페인 배너를 통해 신청

---

# 치료없는 모발이식 '탈모의 늪' 될수도

## 숭숭 빠지는 머리카락 원인 진단부터 하세요

모리지피부과 오준규 원장.

사람의 이미지를 가장 많이 달라지게 만드는 것은 '헤어스타일'이다. 아무리 멋진 명품 패션과 뛰어난 개성으로 치장을 해도 탈모가 있다면 비호감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탈모는 질환! 조기치료 중요

또 한 언론의 조사에 따르면 남녀를 불문하고 머리숱이 점점 얇아지거나 탈모가 많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은 탈모에 대한 고민과 함께 모발이식에 관심이 많으며 그중 대다수가 탈모의 해결책으로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모발이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어떤 질환이든 조기 치료가 중요하듯 탈모도 조기치료가 우선이다.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 가운데 수술로 탈모를 끝내려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은 치료적인 성격이 아닌 보완의 한 방법일 뿐이다. 따라서 탈모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수술만 강행하게 된다면 이식 부위 외에 또 다른 부위에 탈모가 진행돼 재수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탈모 역시 조기 치료와 함께 환자에게 맞는 근본적인 치료로 접근해야 한다. 개원 후 13년 동안 약 3900차례 이상의 난치성 탈모 환자를 치료해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00여 케이스를 수술 없이 관리로만 완치시킨 오준규 모리지피부과 원장은 "많은 탈모 환자들이 빨리 회복하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서 섣부른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치료 과정이 생략된 수술은 탈모의 끝이 아닌,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라고 말했다.

◆수술 없이 탈모 극복 사례 많아

오 원장에 따르면 탈모는 유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스트레스 등의 후천적인 요인의 영향도 받는다. 따라서 무작정 수술만을 고려하기보다는 탈모 극복을 위한 정확한 진단과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치료적 방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후 마지막 방법인 수술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것. 즉 치료적 개념에서 탈모에 접근해야 완치가 가능하다.

특히 유전성이나 재발이 잦은 난치성 탈모 질환일 경우에는 내분비 치료 없는 수술을 받으면 안 되고 수술 외 대안이 없는 앞머리 M자 부위 등에는 맞춤형 모발이식으로 밀도를 보완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황재용기자

---

# 항원주사로 체질개선 가능

## 봄철 부쩍 심해지는 알레르기 비염 'SOS'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늘어나는 환절기다. 더욱이 최근에는 꽃가루나 황사, 미세먼지로 인해 비염 환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 가장 흔하지만 치료가 쉽지 않고 심해질 경우 천식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알레르기 비염에 걸리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알레르기 비염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물질에 대한 일종의 과민 반응으로 코 막힘, 재채기, 맑은 콧물 등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질환이다. 감기 증상과 비슷해 감기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알레르기 비염은 감기와 달리 발열 증상이 없고 지속 기간이 길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치료는 크게 면역 치료와 조절 치료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는 면역 치료를 통한 알레르기 체질 개선으로 약물 복용 없이도 증상을 개선하고 천식으로 진행되는 알레르기 질환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면역 치료는 알레르기 반응 검사 후 나타나는 원인 항원에 대한 항원 물질을 주사를 통해 낮은 농도부터 높은 농도로 올리면서 투여하는 치료법이다. 즉 체내에서의 면역 체계를 바꿔 알레르기 반응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조절 치료는 비염 자체를 없애는 방법은 아니지만 비염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거나 증상이 발병했을 때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다. 먼저 검사를 통해 원인 물질을 찾아내 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주로 집먼지, 개나 고양이 털 등 실내 항원으로 발병하는 환자들에게 효과적이다. 또 다른 조절 치료 방법인 약물 치료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약을 복용하거나 콧속에 약을 뿌려 증상을 줄이는 방법으로 현재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하연기자 hauns0404@metroseoul.co.kr

## 야간매점 메뉴 집에서 뚝딱!

### 모디슈머 위한 간편식

식품업계에 '모디슈머' 열풍이 뜨겁다. 라면 업계에서 시작된 모디슈머는 수정을 의미하는 modify 와 소비자 consumer 를 합친 신조어로 소비자의 취향에 따른 새로운 레시피가 계속 등장하며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가정 간편식 시장이 확대되면서 간편식에도 새로운 레시피를 창출하는 '간편식 모디슈머'가 주목 받고 있다. 간편식 모디슈머는 조리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맛과 영양까지 챙길 수 있는 간편식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주로 싱글족이나 맞벌이 부부들이 여기에 속한다.

대상FNF 종가집의 '데이즈 버섯육개장'과 '데이즈 생칼국수'를 이용해 간편하게 육개장 칼국수를 조리할 수 있다. 또 간편식 잡채에 스파게티용 토마토 소스를 넣고 비빈 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근사한 그라탕 요리가 완성된다.

오뚜기의 '옛날잡채 매콤한 맛'은 용기면 형태로 언제 어디서든 용기에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리기만 하면 맛있게 매콤한 잡채가 만들어 진다.

계란찜을 밥에 넣고 간장과 참기름을 첨가해서 비비면 간단한 '계란찜 비빔밥'이 된다. 기호에 따라 깨소금이나 먹다 남은 김을 부셔 넣으면 더욱 고소하다. 종가집의 '데이즈 뚝배기 계란찜 2종'은 특별한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KBS2 '해피투게더'의 야간매점에서 소개된 '만두밥'은 얇은 만두피 안에 국내산 돼지고기와 5가지 야채를 넣어 만든 동원 개성 '왕만두'를 쪄서 즉석밥에 간장을 넣고 비벼주기만 하면 완성된다. /김학철기자

스타우드 채용의 날 행사 21일 오전 서울 광진구 W서울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스타우드 커리어스 데이(STARWOOD CAREERS DAY)' 채용박람회에 이준현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기업문화실 상무, 리처드 수터 쉐라톤 인천 호텔 총지배인, 브라이언 박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총지배인, 빅크람 쿠줄다 W 서울 워커힐 총지배인, 송원석 쉐라톤 디큐브시티 서울 호텔 부장(왼쪽부터)이 참석해 이번 행사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 뉴스 & 뉴스

### 롯데리아 치킨버거 1400원 이벤트 126만개 팔려

● 롯데리아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치킨버거 1400원 판매 이벤트'가 3일 만에 126만 개 판매 기록을 세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록은 특수 매장을 제외한 롯데리아 전국 1060여 개 매장에서 동시 진행한 결과로 이번 이벤트 동안 매장당 하루 평균 400여 개의 치킨버거를 판매한 셈이다.

### 제지업계 임직원·가족 200명 참여 식목 행사

● 한국제지연합회는 지난 22일 서울시 강동구 소재 시유지에서 회원사 임직원 및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여한 제지업계 가족 식목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제지업계가 자발적인 조림 활동을 통해 지구온난화 등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계획됐으며 간벌지에 산벚나무 등 1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 신소비층 '알봉족' 잡아라

### 과일 한 알·가공식품 한 봉… 1~2인가구 겨냥 낱개 포장 마케팅

'소용량 소포장' 제품 전성시대다. 최근 한 대형마트의 통계에 따르면 1만원 박스 매출은 전년 대비 15%, 한우 150g 소포장 팩 매출은 72%나 늘어났다. 이런 트렌드와 맞물려 '알봉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알봉족이란 신선식품인 과일을 세는 단위인 '알'과 시리얼 등 가공식품을 담는 단위인 '봉'에서 따온 말로, 낱개 포장된 100원 단위 식료품을 애용하는 새로운 소비층을 일컫는다.

[신상품출시][10+1이벤트] 오하루시리얼 블랙크런치 1봉 50g
20% 1,200원

◆과일 '알'로 구매해서 '알'차게 먹자

과일을 알 단위로 구매하는 알봉족의 주 소비층은 단연 1인 가구 나홀로족이다. 과거 과일은 주로 킬로그램(kg) 박스 단위로 판매돼 대량 구매해야 했다. 이 때문에 1인 가구 등에게는 가격이 비싸면서 유통기한도 짧은 과일은 가장 섭취하기 힘든 품목 중 하나였다. 이런 가운데 소셜커머스에서는 과일 알을 100원 단위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해 알봉족 편의를 높이고 있다.

◆건강식품 '봉'으로 신선하게 먹자

개별 포장 상품은 바쁜 맞벌이 부부에게도 안기다. 외식이 잦고 끼니를 간단히 때우는 빈도가 늘어 '봉'으로 포장된 가공식품 소비가 많다. 가공식품은 일단 한번 개봉하면 쉽게 신선도를 잃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맛과 영양이 떨어지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봉' 상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건강식품도 '봉'으로 판매되는 주요 상품이다. 도라지, 양파, 사과 등 원료 중심의 즙 형태가 대표적인데 최근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급증하고 웰빙 라이프스타일이 각광받으면서 신개념 음료로까지 인식되는 분위기다. 브로콜리·도라지 등의 채소부터 아사이베리·석류 등 과일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장윤일기자 ymat@metroseoul.co.kr

## 봄인데 벌써 카페엔 '모히토' 가득

### 여름메뉴 편견 깨고 출시

국내 기후가 아열대기후로 점차 변화하면서 평균기온이 예년보다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제철 과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유통가에선 계절과 무관한 다양한 과일이 출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식음료업계에는 모히토 경쟁이 일고 있다. 기존엔 여름 시즌에 출시하던 모히토 음료를 올해는 한 시즌 먼저 선보인 곳도 있다. 모히토 칵테일은 상큼하고 청량한 맛으로 갈증 해소에 좋아 주로 여름철에 즐기는 음료였지만 따뜻한 날씨가 성큼 다가옴에 따라 시원한 맛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제리너스커피는 최근 '퐁당 에이드(사진)' 4종 중 하나로 '모히토 에이드'를 선보였다. 퐁당 에이드는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레드자몽, 모히토로 구성된 상큼한 에이드로 신선한 라임 펄프에 싱그러운 애플민트와 청레몬을 퐁당 빠뜨려 청량한 맛과 함께 시각적인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파스쿠찌는 모히토에 딸기를 더한 '스트로베리 모히토 에이드'를 출시했다. 생딸기를 그대로 갈아 만든 스트로베리 에이드에 모히토 시럽과 민트잎을 첨가한 제품으로 달콤한 딸기와 상큼한 라임이 어우러져 기존 모히토와는 다른 새콤달콤한 모히토를 맛볼 수 있다.

커핀그루나루는 '바카디 모히토' 칵테일을 판매 중이다. 모히토 칵테일의 오리지널 레시피인 바카디 럼을 베이스로 라임과 민트를 섞어 상큼한 맛을 낸 칵테일이다. 모히토 칵테일의 기존 칵테일에 알코올 도수가 낮아 여성 고객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T.G.I.프라이데이스에서는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모히토', 딸기가 어우러진 '스트로베리 모히토', 그림해톱이 더해진 '빅 여름 모히토', 새콤한 석류의 조화가 일품인 '피미그래닛 모히토' 총 4종의 다양한 제품이 준비돼 있어 입맛에 따라 골라 즐기기 좋다. /장윤일기자

## 편의점 들렀더니 "와~ 여름이다"

편의점 업계가 예년보다 빠르게 잇따라 여름 주력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 잡기에 나선다. 상품 구색도 캡슐커피와 과즙음료, 연기 연예인의 이름을 딴 스타킹 등 다양하다.

먼저 CU(씨유)는 24일부터 편의점의 대표적인 여름 상품인 '델라페(delaffe) 아이스드링크'를 본격적으로 판매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주 앞서 선보인 것이다.

특히 업계 최초로 캡슐 아이스커피 '델라페 캡슐커피'(1200원)를 선보인다. 아메리카노 헤이즐넛 두 종류로 캡슐에 담긴 원두 농축액을 컵얼음과 생수에 직접 제조할 수 있어 취향에 맞게 맛과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븐일레븐은 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밀크티에 꿀을 첨가해 달콤함을 더한 '허니밀크티(1500원)'와 저칼로리 다이어트 음료 '레몬바디톡(1000원)' 등을 새롭게 출시하며 주 고객층인 20~30대를 겨냥했다.

이와 별도로 3월부터 걸스데이를 모델로 한 스타킹 4종(크리스탈누드토우·일반 스타킹 각 2종, 4000원)도 선보였다. 이 제품은 광택 효과가 뛰어나 착용 시 은은하게 빛나며 다리라인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장윤일기자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메트로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하는 5월 어버이를 위한 음악회

지휘 | 여자경
바이올린 | 임지희
하프 | 김아림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14. 5. 8(목)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metro 메트로신문사
주관 |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R석 20만원 / S석 12만원 / A석 7만원 / B석 5만원 / C석 2만원

SAC Ticket
www.sacticket.co.kr 02 580-1300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 1555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무국
031-392 6422
www.primephil.net

shin youngok

# 떠돌이 서울패션위크 'DDP 둥지' 첫 워킹

### 동대문디자인 플라자서 21일 개막에 맞춰 행사 패션 한류의 도약 기대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디자인재단 ·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2014 F/W 서울패션위크가 지난 21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은 서울패션위크는 국내 최정상급 디자이너의 패션쇼로 구성된 서울컬렉션, 차세대 한국 패션을 이끌 신진 디자이너들의 제너레이션 넥스트, 국내외 총 48개 패션 브랜드가 참가하는 비즈니스 상담 전시회 서울패션페어 등 한국 패션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장으로 구성됐다.

패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패션위크를 통해 신진 디자이너들은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고 정상급 디자이너들은 경쟁력 향상과 다양한 국내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내 국내 패션 산업이 한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홍승완 로리엣, 정두영 반하트 디 알바자, 박종철 슬링 스톤, 고태용 비욘드 클로젯(왼쪽부터) /2014서울패션위크 제공

또 패션위크가 열리는 DDP는 동대문운동장을 허문 자리에 약 5000억원을 들여 5년간 건설된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非定形) 건축물로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가 매 시즌마다 패션위크 장소 섭외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앞으로는 지정된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돼 서울패션위크의 격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 행사장인 DDP에는 개막일인 지난 21일 행사 관계자 및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행사는 패션위크 제너레이션 넥스트에 참여한 신진 디자이너 17명의 콜라보레이션 쇼에 이어 아이돌 그룹 엑소(EXO)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패션쇼 첫 무대로 홍승완 디자이너의 로리엣에 이어 정두영 디자이너의 반하트 디 알바자, 박종철 디자이너의 슬링 스톤, 고태용 디자이너의 비욘드 클로젯이 가을 겨울 컬렉션을 선보이며 서울패션위크의 시작을 알렸다.

백종원 서울디자인재단 대표는 개막 연사에서 "창조 산업의 시발점인 동대문에서 서울패션위크가 열린 것에 대해 감격스럽게 생각한다"며 "DDP에서 보다 활발한 패션 산업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상봉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장은 "DDP가 대한민국 디자인의 메카인 만큼 모두에게 사랑받는 문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영화·드라마 · 가요 등에 이어 한류 패션이 아시아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패션위크는 지난 2012년까지 티켓을 판매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초대된 인원만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다. 일반 관람객들이 티켓을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관계자 외 패션에 관심 있는 일반 관객들도 국내 최고 수준의 패션 행사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과제도 함께 남긴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김하늘기자 kmc0504@metroseoul.co.kr

## 안중근 기념관 품은 하얼빈 여행 '손짓'

코레일관광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한 하얼빈 여행상품을 운영한다.

이번에 출시한 하얼빈 상품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중심으로 한 관광코스로 구성돼 3박4일 일정과 2박3일 일정으로 선택할 수 있다.

3박 4일 일정은 첫째날 오전 인천을 출발해 하얼빈 국제공항에 도착 후 하얼빈 시내로 이동한다. 둘째 날은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철탑인 용탑과 흑룡강성 역사박물관 호랑이 사파리 투어가 가능한 동북호림원을 둘러본다. 셋째 날은 안중근 기념관을 방문한다. 또 성 소피아 성당과 하얼빈을 가르는 송화강, 하얼빈 문묘를 차례로 관광한다. 마지막 날에는 일본군 악행의 현장 731부대를 견학한다. /황재용기자

'다둥이클럽' 4만5000가구 출산 약속 롯데마트는 23일 유통업계 최초로 선보인 다자녀 가구 지원책인 '다둥이클럽'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2주간 1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출산 서약 시 '다둥이클럽' 가입 혜택을 제공한 결과 누적 4만5000여 가구가 둘째 출산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제공

## 유로타임 온라인몰 새단장

거노코퍼레이션의 유러피안 워치 셀렉트 숍인 유로타임(EURO TIME)이 공식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www.eurotime.kr)를 새롭게 단장했다.

새로 개편한 유로타임 홈페이지는 기존보다 더욱 넓어진 화면과 카테고리를 최소화해 방문객은 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또 스타 화보 및 드라마에 등장하는 시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제공해 재미를 더했고 유로타임이 제공하는 혜택 및 커뮤니티 연계 이벤트 소식 등을 다양하게 게재했다.

한편 유로타임은 오는 31일까지 구매 금액에 따라 올리비 에밀 탁상시계와 벽시계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김하늘기자

## 주방 행주에도 북유럽 바람 분다

### 스웨디시 클로스 출시 맞춰 테코트릭 대표 두번째 방한

최근 북유럽 스타일의 디자인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에는 '스펀지 클로스'라는 제품군 중 스웨덴 섬유 전문회사 테코트릭(Teko Tryck)이 만드는 '스웨디시 클로스'가 한국에 상륙한다. 이에 맞춰 테코 트릭의 대표인 닐스게너 페르손(Nils Gunnar Persson·사진)이 서울을 방문했다. 테코 트릭은 스펀지 클로스라는 소재에 스웨덴의 유명 디자이너 회사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해 감각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프리미엄 리빙 제품 스웨디시 클로스를 생산하고 있다.

스펀지 클로스는 1949년 스웨덴에서 발명됐으며 흡수력 · 건조성 · 항균력 · 세척력 · 내구성이 뛰어나 스웨덴에서는 전 국민의 50%가 사용할 정도로 널리 사용되는 친환경 행주 제품이다. 천연 식물성 소재인 셀룰로스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땅에 묻어도 미생물에 의해 100% 분해되고 일반 페이퍼타월과 달리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스웨디시 클로스의 가장 큰 특징은 물에 적셔 행주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말렸을 때는 컷 스탠드·화분 받침·런천 매트 등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일메달 · 마린 쉬스트베르그 · 엘러리안의 디자인이 입혀진 스웨디시 클로스를 판매 중이며 향후 차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번이 두 번째 방한이라는 그는 "한국은 스웨덴처럼 친구의 집을 방문하는 문화가 발달돼 있으며 생활 수준이 높다"며 "앞으로는 한국만의 디자인을 살린 제품도 생산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혜인기자 hyun@

해피선데이-1박2일

##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집행위원장 개그맨 김준호

개그맨 김준호(39)가 글로벌 K-코미디의 최전선에 선다. KBS2 '개그콘서트' '해피선데이-1박2일' '인간의 조건' 퀴즈쇼 사총사 등 4개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고 46명의 소속 개그맨을 이끄는 코코엔터테인먼트 대표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BICF)의 집행위원장을 맡아 한국 코미디의 성장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는 21일 개막한 제6회 오키나와 국제영화제(OIMF)를 찾아 콘텐츠바자에서 BICF를 적극 홍보했다.

/오키나와=유순호기자 suro@metroseoul.co.kr

인간의 조건

# K-코미디 성장 향해 쉼없이 달리'쟈나'

오키나와 국제영화제 찾아 '글로벌 세일즈'… 사비까지 털어 앞장

개그맨에 대한 인식 많이 좋아져… 축제 등 플랫폼 활성화돼야

'개콘' 1000회까지 출연해야죠… 제 가장 큰 목표는 한국의 짐캐리

**–올해 OIMF를 찾은 목적은**

지난해 BICF에 OIMF 주최사인 요시모토흥업 소속 개그맨들이 교류 차원에서 많이 참여해줬다.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이곳을 찾았고, 올해 8월 29일 열리는 제2회 BICF를 각국 영화·코미디 관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콘텐츠 바자에 참석했다.

**–BICF를 개최한 이유는**

한국 개그맨들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싶었고 세계 3대 코미디 축제인 호주 '멜버른 코미디 페스티벌'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캐나다 '몬트리올 코미디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를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개최해 코미디 콘텐츠 무역센터 개념으로 한자리에 뭉치고 싶었다. 당분간은 공연 콘텐츠 위주로 운영되겠지만 5회쯤에는 영상 콘텐츠도 초청해 단편·장편 등의 모든 코미디 영화가 총집합하는 축제로 꾸미고 싶다.

**–BICF의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나**

지난해에는 개인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사비를 털어가면서까지 이런 일에 앞장서는 이유가 뭔가**

언어의 장벽은 있지만 한국 코미디는 충분히 세계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 해외의 많은 좋은 콘텐츠들이 한국에서 뭉쳤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 개그 그룹인 옹알스가 세계 여러 페스티벌을 다니며 섭외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지난해 행사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선후배들이 방송사의 장벽을 넘어서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거다. 내가 선배와 후배의 중간 위치라 이런 일에 앞장서는 게 가능한 것 같다.

**–부산을 코미디 페스티벌의 장소로 택한 이유는**

우선 국제공항이 있는 도시를 찾았고, 영화제 때문에 문화 콘텐츠와 관련한 국제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지닌 부산을 택하게 됐다. 내 고향은 대전인데 그 지역 국회의원 등 여러 선배들로부터 혼이 나기도 했다. (웃음)

**–개그맨의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에 성과가 있는 것 같나**

개그맨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여전히 낮지만, 개그맨 수는 늘어가는데 설 수 있는 무대는 적은 것이 문제다. 페스티벌 등 많은 플랫폼이 활성화돼야 한다. 일본의 요시모토흥업 소속을 보면 개그맨 출신의 유명 감독이나 작가가 많은데 한국에서도 그런 인물이 탄생했으면 한다. 손현수 같은 후배도 영화 제작을 배우고 있는데 곧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낼 거라 믿는다.

**–자신의 가장 큰 목표는 뭔가**

단국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는데 개그맨 이전의 꿈은 코미디 영화를 찍는 사람이었다. 나이가 들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다. 한국의 짐 캐리나 주성치가 되고 싶은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지난해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 이후 어떤 변화가 있나**

더 많은 분들이 알아봐준다. 지나가는 개도 알아보는 느낌이다. '개그콘서트'에서는 '쟈나' 이후 재미있는 코너가 안 나와 욕먹을까봐 걱정인데 지난 14년 동안 늘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계속 노력할 것이다. 최근엔 '1박2일' 시청률이 조금 올라 기분이 좋다.

**–'개그콘서트'의 맏형으로서 책임감이 크겠다**

1999년 8월 1회부터 해왔다. 바람은 5년 정도 후인 1000회까지 출연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후배들과의 소통이 필수다.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선배는 살아남기 힘들다. 그래서 후배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술도 자주 마신다. 결국 오래 남으려면 후배들에게 돈을 많이 써야 한다. (웃음)

**–1000회 이후의 계획은**

코미디 영화의 꿈을 완성하는 것이다. 단편영화 출연부터 장편영화 연출까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영화인들과도 계속 소통하고 노하우를 쌓고 있다.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영화 '자토이치'가 나의 롤모델이다.

**–예능 프로그램 MC로서의 욕심은**

유재석·강호동·신동엽은 신이다. 그들을 쫓아가는 것은 불가능이다. 아직 구체적인 형태는 모르겠지만 그런 선배들과 다른 새로운 진행 스타일을 고민하고 있다.

**–많은 일을 하는데 모두 잘 풀려가는 것 같다**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돌아다닐 때는 사기를 많이 당했는데 코미디에 집중했더니 자연스럽게 일이 잘 풀려갔다. 인복도 많은 것 같다.

대담/정리=박준자

# 김수현 매력에 빠진 대만 이민호 마법 걸린 필리핀

## 팬미팅 3000명·공연 1만5000명 몰려

배우 김수현(왼쪽 사진)과 이민호(오른쪽)가 아시아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으키며 신한류의 선두 주자임을 입증했다.

김수현은 지난 21일 '2014 김수현 아시아 투어' 두 번째 국가인 대만을 방문했다. 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1500여 명의 현지 팬과 160여 명의 취재진이 몰리면서 큰 소란을 빚었고 이에 공항 측은 100명 이상의 보안요원과 경찰 병력을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대만 중천TV에선 김수현의 입국 현장을 생중계했고 애플데일리·유나이티드 데일리·명보 위클리 등 대만 유력 매체들은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 종영 후 이뤄진 이번 투어의 준비 과정부터 김수현의 팬미팅을 앞둔 심경을 집중 보도했다.

김수현의 대만 팬미팅은 지난 22일 대만 타이베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으며 3000명가량이 참석했고 김수현은 '별그대'의 삽입곡을 비롯해 모두 5곡의 노래를 불러 감동을 선사했다.

드라마 '상속자들'을 통해 한류스타로 자리매김한 이민호는 지난 21일 필리핀을 강타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있는 아라네타 콜리세움에서 열린 '벤치' 공연장에는 1만5000명이 들어찼고 미처 입장을 못 한 팬들은 밖에서 장사진을 이뤘다.

'벤치'는 이민호가 전속 모델로 활동 중인 글로벌 캐주얼 브랜드 '벤치'에서 마련한 프로모션으로 이민호는 이날 팬들에게 한국어 대사를 알려주는 등 한류 전도사 역할을 해냈다.

필리핀 현지 방송국 관계자는 "필리핀에서 이민호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며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그대로 따라 하는 추종자들이 줄을 잇고 한국어로 농담을 한다. 이민호의 방문을 국가 공휴일로 만들자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고 말했다.

/전효진기자

# 두 소녀 연기 놀라워라

## '세결여' 김지영 '신의 선물' 김유빈 열연 호평…주연급 존재감

아역배우들이 뛰어난 연기력으로 극의 흐름을 주도하며 성인 연기자 이상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SBS 주말극 '세 번 결혼하는 여자'에서 오은수(이지아)·정태원(송창의) 딸 정슬기로 열연 중인 김지영은 어이답지 않은 눈물 연기로 호평받고 있다.

지난 22일 방송에선 오은수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정슬기가 "나는 할아버지·할머니랑 살면 되니까 엄마는 아기랑 아저씨랑 사는 게 좋을 거 같아"라며 눈물을 삼킨 굳은 다짐을 전했고 예상치 못한 슬기의 속 깊은 발언에 오은수는 가슴을 움켜진 채 소리 없이 통곡했다. 임신한 엄마의 입장을 생각해 거리를 두려는 딸과 미안한 마음뿐인 엄마의 안타까운 눈물이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극중 정슬기의 친할머니 역으로 출연 중인 김용림은 "우는 연기를 할 때면 김지영은 뛰어난 집중력으로 미리 감정을 잡고 있다. 연기 열정이 놀랍다. 좋은 배우가 될 것 같아 기대가 된다"고 극찬했다.

SBS 주말극 '세 번 결혼하는 여자' 김지영

SBS 월화극 '신의 선물-14일' 김유빈

SBS 월화극 '신의 선물-14일'(이하 '신의 선물')에선 한샛별 역의 김유빈이 큰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다. 한샛별은 드라마 스토리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캐릭터다. 또래보다 순수하고 햇살 같은 미소를 지녀 유괴를 당한 극중 상황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샛별을 따라 죽으려고 저수지에 뛰어든 김수현(이보영)이 딸이 죽기 2주 전 시간으로 돌아가며 추리가 시작되는 이 드라마에서 한샛별은 스토리의 미궁점을 푸는 열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드라마의 한 관계자는 "모든 제작진들이 만장일치로 한샛별 역에는 김유빈이 적역이라고 판단했다. 나이는 어리지만 자신이 연기하는 캐릭터가 처한 상황에 집중해 풍부한 감성 연기를 보여주는 재능 있는 배우다"고 전했다.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 무한도전 '스피드 레이서' 시청률 1위 질주

'무한도전' 스피드 레이서가 동시간대 경쟁 프로그램에서 시청률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은 11.5%의 전국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5일 방송분이 기록한 11.8%보다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시청률은 하락했지만 동시간대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했다.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과 KBS2 '불후의 명곡'은 각각 11.4%와 11.0%를 나타냈다.

특히 '무한도전'은 3주 만에 토요일 저녁 예능 프로 시청률 1위에 복귀했다. '무한도전'은 2주 연속 '불후의 명곡'에 시청률 1위를 내줬지만 '불후의 명곡'이 큰 폭으로 시청률이 하락하면서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날 '무한도전'에서는 2014년 장기 프로젝트 '스피드 레이서' 특집으로 카레이싱 도전에 나선 멤버들의 첫 번째 이야기가 담겼다. 이날 유재석과 정준하는 레이스 실력을 뽐내며 마스터스 클래스까지 도전했고 특히 유재석은 뛰어난 운전 실력을 드러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전효진기자

# '엔젤아이즈' 이상윤·구혜선 티저 공개

배우 이상윤(위 사진)·구혜선(아래)이 주연을 맡은 SBS 새 주말극 '엔젤아이즈'의 첫 티저 영상이 공개됐다.

22일 SBS에서 공개된 티저 영상에는 맑고 깨끗한 첫사랑 이야기를 그려나갈 아역 강하늘과 남지현 그들의 뒤를 이어 12년의 세월이 지난 후 운명적으로 다시 만나게 될 이상윤과 구혜선의 모습이 교차적으로 담겨있다.

작품에서 이상윤은 고운 심성으로 다른 이의 아픔을 살필 줄 아는 응급외과의사 박동주(닥터 박) 역을 맡았고 구혜선은 청순한 외모와는 달리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119 구급대의 응급구조사 윤수완 역으로 분했다.

특히 두 사람은 그들의 파란 시절 풋풋하고 설렘 가득한 사랑 이야기를 1~2회에 걸쳐 담아낼 강하늘·남지현과 완벽한 싱크로율을 보이며 '엔젤아이즈'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엔젤아이즈'는 SBS '야왕' 유령'을 연출한 박신우 SBS 감독과 KBS2 '꽃보다 남자'를 집필한 윤지련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이며 '세 번 결혼하는 여자'의 후속으로 다음달 5일 첫 방송 된다.

/전효진기자

# 송가연·권봄이 스포츠 미녀스타 방송 나들이 줄이어

격투기나 카레이싱 등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스포츠에 몸담은 미녀 선수들이 방송에 출연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미녀 선수는 '얼짱' 격투기 선수로 최근 유명해진 송가연(왼쪽 사진)이다. 그는 격투가 뿐 아니라 MBC '경두의 비밀다쇼' tvN 'SNL 코리아'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도 종횡무진하고 있다.

22일 방영된 SBS '스타킹'에도 개그맨 윤형빈·서두원 선수와 동반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주특기인 로우킥을 김종민을 상대로 선보이는 기리면 여성들을 위한 호신술과 몸매 가꾸기 등을 공개했다.

같은 날 MBC '무한도전'의 스피드 레이서 특집에는 미녀 카레이서 권봄이(오른쪽)가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지난해 KSF 3전 마스터스 대회에서 2위에 입상하는 등 뛰어난 실력으로 유일의 여성 드라이버에 선정된 카레이서다.

이날 방송에서 연예인급의 미모로 눈길을 사로잡은 권봄이는 레이싱에 대해 친절하고 차분하게 설명해 '무한도전' 멤버들과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박진환기자 bjh1127@

대한민국 노처녀 여러분,
잘들 지내시죠?

tvN 다큐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13

매주 |목| 밤 11시 tvN 방송 / 3월 27일 첫방송

## 2NE1 홍콩 공연 8000명 운집

걸그룹 2NE1이 홍콩에서 두 번째 월드투어 '올 오브 낫싱'(사진)의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2NE1은 지난 22일 오후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에서 월드투어 '올 오브 낫싱'에 약 8000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2NE1은 정규 2집 수록곡 '크러쉬'로 화려하게 포문을 열었다. 화려한 골드 컬러 재킷 스타일의 무대 의상을 입고 등장한 2NE1은 강렬한 카리스마로 단숨에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이어 '파이어' '박수쳐' '프리티 보이' 등 퍼워풀한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히트곡들로 공연장을 뜨겁게 달궜다. 뿐만 아니라 '그리워해요' '살아봤으면 해' '컴 백 홈' 등 감성적 보컬이 인상적인 곡들로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박봄은 최근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 선보인 1위 기념 덤블링을 다시 선보여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2NE1은 18곡의 히트곡으로 팬들을 만족시켰고 홍콩 팬들은 열정적인 반응으로 2NE1을 감동시켰다.

홍콩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친 2NE1은 4월 11일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월드투어를 이어간다. /김민준기자

## 크레용팝 '어이' 럭셔리 콘셉트

걸그룹 크레용팝(금미·엘린·초아·웨이·소율)의 신곡 '어이'의 뮤직비디오 스틸컷이 공개됐다.

크레용팝의 소속사 크롬엔터테인먼트가 22일 공개한 뮤직비디오 스틸컷에는 가수 백지영, DJ DOC의 김창열(사진 가운데), 개그맨 유상호 등 카메오들의 모습만 공개돼 뮤직비디오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세련된 슈트 차림으로 호화로운 파티장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크레용팝의 신곡 콘셉트인 '모시옷'과 상반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신곡 '어이'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는 오는 4월 1일 정오에 발표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임창정

이승환

이은미

# 실력파 가수 줄줄이 돌아온다

## 임창정 이어 이승환·박효신 등 이달 컴백

실력파 가수들이 대거 컴백 소식을 알리고 있어 가요계가 한층 풍성해지고 있다.

아이돌 그룹들이 장악했던 음원 시장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지난 21일 정규앨범 12집을 발매한 임창정의 신곡 '흔한 노래'가 전 온라인 음원차트를 장악했다. 아이돌과 OST 봄을 맞이해 역주행을 시작한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을 꺾고 1위에 올랐다.

임창정에 이어 26일에는 이승환이 정규앨범 11집을 발매한다. 지난 17일 선공개한 정규 11집 '폴 투 플라이'의 수록곡인 '내게만 일어나는 일'은 공개와 함께 주목받았다. 이별 후 겪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담담하게 말하는 듯 부르다가도 후렴구에서는 흐느끼는 창법이 특징이다. 앨범 공개와 함께 그는 28일 앨범 발매 기념 단독 공연을 개최한다. 이승환은 음악 방송이 아닌 콘서트를 통해 컴백을 진행해 새로운 행보를 예고했다.

박효신은 오는 28일 신곡 발매를 깜짝 공개하며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OST와 소속사 프로젝트 앨범으로 활동할 것 외에는 별다른 음악 활동이 없었기에 박효신의 신곡 발표는 4월 음원차트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또 조성모도 오는 24일 미니앨범 '윈드 오브 체인지'를 통해 4년 만에 컴백한다.

남자 솔로가수뿐만 아니라 여자 가수들도 잇따라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 이선희가 오는 25일 발표하는 정규 15집 '세렌디피티'는 2009년 이후 5년 만에 내는 앨범이다. 이선희는 앨범 수록곡 중 10여 곡의 작사·작곡에 직접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이단옆차기, 박근태 등 젊은 작곡가들과 함께 공동 작업하며 내공을 뽐냈다.

6년 만에 정규 8집 '8'을 발표하는 이소라도 임헌일, 정준일, 김민규 등 신예 작곡가들이 대거 참여하며 음악적 변화를 시도했다. 특히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개설해 가사와 악보를 선공개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영원한 국민 디바' 이은미도 2년 만에 전격 컴백한다. 이은미는 26일 새 미니음반 '스페로 스페레'를 발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라는 뜻의 라틴어로 된 이번 음반 '스페로 스페레'는 타이틀곡 '가슴이 뛴다' '해피블루스' '사랑이 무섭다' '괜찮아요' 등 총 5곡으로 구성돼 있다. 큰 줄거리의 연작 이야기를 가슴으로 읽어 내려가는 '이은미표' 음반이다.

이처럼 1990년대 보컬리스트들의 컴백은 4월 가요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새해요기자 yowl@metroseoul.co.kr

**청순과 섹시 사이**
배우 배두나가 청순과 섹시를 오가는 봄날의 여인으로 돌아왔다. 배두나는 최근 공개된 잡지 '하이컷' 4월호 화보에서 갖가지 시스루 의상으로 섹시한 매력을 뽐어냈다. 블랙 시스루 레깅스로 늘씬한 각선미를 강조하는가 하면 미니멀 시스루 원피스로 청순하면서도 고혹적인 분위기를 어필했다. 화이트 시스루 원피스를 입고 드러누워 뽀얀 속살을 드러내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 슈주-M, 中 회견 107만명 동시접속

새 미니앨범 '스윙'으로 컴백한 슈퍼주니어-M(사진)이 매머드급 기자회견으로 중국을 뒤흔들었다.

미니 3집 '스윙' 발매를 기념해 22일 베이징의 중심가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다안극장에서 열린 컴백 기자회견에는 시나·소후·왕이·인위에타이·아이치이·베이징신보·투도우 등 70여 개 매체 150여 명의 취재진들이 참석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사전 이벤트를 통해 특별 초대된 400여 명의 현지 팬들도 함께 참석해 현장의 열기를 더했으며 슈퍼주니어-M을 보기 위해 운집한 수많은 팬들로 기자회견장 주변 일대가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슈퍼주니어-M은 기자회견에서 컴백 소감과 함께 새 앨범 소개, 활동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들려줬고 타이틀곡 '스윙'의 뮤직비디오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아이치이에 생중계됐고, 약 107만 명의 접속자가 동시에 몰려 한때 서버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슈퍼주니어-M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생방송으로 진행된 중국 최초 수위제 음악 프로그램인 CCTV '글로벌 중문음악 방생방' 첫 회 특집에 출연해 컴백 무대를 선사했다. 이들은 다음달 초 방송되는 중국 인기 음악 차트 프로그램 '음악풍운방' 녹화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

# 스크린에 담긴 한·일 젊은이들의 우정

오키나와영화제 '런 서울 런'

### 일본 고지카 감독 단편작 "봉준호 '살인의 추억' 완벽" 개그맨 김대희 출연 '눈길'

한·일 외교 갈등과 문화 교류 침체 속에 양국 젊은이들의 우정을 소재로 한 영화가 제작돼 관심을 모은다. 21일 개막한 제6회 오키나와 국제영화제 의 '커뮤니티 베이스드 무비즈' 부문에 초청된 단편영화 '런 서울 런'은 일본인 감독과 배우, 한국 개그맨 김대희가 참여하고 일본 최대 연예기획사 요시모토흥업의 한국지사인 요시모토 서울이 제작해 양국 영화 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준비를 마쳤다.

'런 서울 런'의 제작은 출발부터 흥미롭다. 한국이 좋아 서울을 찾은 일본의 세 남녀가 우연히 타국에서 만나 의기투합했다. 이 영화의 고지카 다카시(33) 감독은 2012년부터 한국 생활을 하다 홍대 앞의 미용실 주인 소개로 남자 주인공 다케다 히로미즈(33)를 만났다. 다케다는 2006년부터 한국에서 어학 공부와 배우 생활을 하고 있다.

요시모토흥업 소속 개우미기도

영화 '런 서울 런'의 고지카 다카시 감독, 히로사와 소우, 다케다 히로미즈(왼쪽부터)가 관객과 만나기 위해 오키나와 국제영화제를 찾았다

한 다케다는 소속사에서 한·일 합작영화를 제작한다는 소식을 고지카 감독에게 전했고, 고지카 감독은 일본에서 알고 지내던 히로사와 소우(35)를 여주인공으로 캐스팅했다. 8개월간 한국 생활 경험이 있던 히로사와는 다시 찾은 서울 이벤길에 영화 출연을 병행했다.

"세 명이 만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에 대한 관심의 시작이 모두 같았어요. 한류가 일본에 전해지기 전부터 한국 영화에 빠져 한국 영화계에 도전하게 된 거죠.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은 시나리오, 촬영, 연기·편집이 완벽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양익준 감독의 '똥파리'를 보고는 리얼한 표현과 에너지에 큰 충격을 받았을 정도였죠."(고지카)

"1999년 비디오 대여점에서 한국 영화를 처음 접한 뒤로 김기덕 감독의 영화는 모두 섭렵했어요. 김 감독 영화에서 풍기는 특유의 냄새가 저와 정말 잘 맞았어요."(다케다)

"'쉬리'를 보고 일본은 물론 아시아 어느 나라 영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감동을 맛봤어요. 그리고 '살인의 추억'을 보고 한국행을 결심했죠."(히로사와)

'런 서울 런'은 말다툼 끝에 무작정 한국으로 가버린 여자친구 가오리(히로사와)를 찾기 위해 서울을 헤매던 가즈(다케다)가 일본인과 결혼을 꿈꾸는 한국인 청년 화영(김대희)과 만나 우정을 나누는 이야기를 그렸다. 20분의 짧은 러닝타임 속에 양국 문화의 차이와 서로에 대한 편견, 화해는 물론 서울의 주요 관광지까지 담아냈다. 속도감 있는 전개와 함께 위트가 담긴 대사도 인상적인 작품이다.

"2년간 한국에서 살면서 느낀 한국 사람들만의 힘과 정을 일본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이번 영화도 한국 친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완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일도 아닌데 친구를 위해 희생하는 우정과 의리는 일본에서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죠."(고지카)

고지카 감독은 "외교 문제는 복잡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정작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것은 그런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라며 "자신의 나라에서 받은 교육은 다르지만 중요한 건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려고 하는 노력이다.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고 하면 지금의 한·일 문제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키나와=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 "김기덕 무비 홀릭… 9년째 한국 유학생활"

'런 서울 런' 주인공 다케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 매료돼 한국을 찾은 일본인 연기파 배우 다케다 히로미즈(33·사진)가 코리안 드림을 향해 달려간다.

한·일 합작 단편영화 '런 서울 런'의 남자 주인공 다케다는 9년째 한국에서 생활해오고 있다. 2004년 일본 최대 연예기획사 요시모토흥업 소속 방송인으로 시작해 일본 연극계에서 기본기를 닦은 그는 데뷔 전인 1999년부터 접한 한국 영화의 매력을 잊지 못해 2006년 무작정 한국행을 결심했다.

"당시 할 줄 아는 한국말은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가 전부였어요. 어학당에 다니고 한국 친구들을 만나며 한국어를 배웠어요. 작은 역할이지만 '봄꽃처럼 나비처럼' '도쿄택시', 그리고 올해 개봉할 '명량' 등의 한국 영화에도 출연하게 됐죠."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서 시작해 봉준호·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모두 섭렵한 그는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일본 영화는 한국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다"며 "주연으로 출연한 첫 영화인 '런 서울 런'을 하면서 한국에서 활동할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 최종 목표는 김기덕·박찬욱·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출연하는 것"이라는 꿈을 밝혔다.

다케다의 이력 중 흥미로운 점은 2자녀의 일본어 강사 활동이다. 그는 "인간적으로 정말 훌륭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다. 지금은 한국 생활을 하느라 서툴러진 나보다 일본어를 더 잘하는 것 같다"고 웃음을 보였다.

그는 오랜 한국 생활 동안 겪은 갖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 시나리오도 준비하고 있다. '쪽바리가 한국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가제를 정해놓고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를 준비 중이다.

"홍대 앞의 술집에서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취객에게 맞았던 일, 한국인 여자친구만 만나면 독도는 누구 땅이냐고 물었던 일 등을 소개하고 싶어요."

/오키나와=유순호기자

## 열도 달군 '미스터 고' '수상한 그녀'

### 오키나와 영화제 오늘 폐막

일본 최남단 섬 오키나와에 웃음과 평화를 담은 영화의 물결이 넘실거린다.

일본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 요시모토흥업이 주최하는 제6회 오키나와 국제영화제가 지난 21일 개막했다.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해변무대에서 열린 레드카펫과 개막식을 시작으로 기노완시와 나하시 일대 극장에서 24일까지 열린다.

코미디 영화를 중심으로 '웃음'과 '평화' 부문으로 나눠 경쟁작을 상영하며 올해 '웃음' 부문에는 일본, 한국, 태국, 미국 등 4개국에서 5편의 영화가 출품됐고, '평화' 부문에는 김용화 감독의 '미스터고'와 황동혁 감독의 '수상한 그녀'를 비롯한 일본·독일 영화 등 6편이 진출했다.

한국 영화인으로는 김용화·황동혁 감독과 '수상한 그녀'의 심은경, 인범을 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오키나와=유순호기자

### '스탈린그라드' 안방극장 흥행

제2차세계대전 중 일어난 스탈린그라드전투를 소재로 한 독일 전쟁영화 '스탈린그라드: 최후의 전투'(사진)가 안방극장에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1월 23일 극장 개봉 후 2월 중순부터 IPTV, 케이블 VOD, 호핀&티스토어, 온라인 서비스 등에서 상영 중인 이 영화는 리마스터링 영화로는 유일하게 올레TV 전체 콘텐츠 톱 100 중 65위를 차지했다. 영화 순위로는 28위를 기록했다.

이런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올레TV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신규 서비스인 클라우드 DVD관에서도 곧 서비스를 한다. 이에 따라 당분간 '스탈린그라드: 최후의 전투'의 인기는 유지될 전망이다.

이 영화는 11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투로 불리며 제2차세계대전 중 독일과 소련 사이 전쟁의 분기점이 된 스탈린그라드전투를 전쟁 가해자인 독일군 병사의 눈을 빌려 사실적이고 참혹하게 묘사한 명작이다. /박은희기자

# 잘 던지고 잘 치고… 류현진 첫승

### 시즌 첫 등판 5이닝 5K 무실점투 ― 첫 타석 안타·득점도

메이저리그 데뷔 2년차를 맞은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LA 다저스·사진)이 시즌 첫 선발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류현진은 23일(한국시간) 호주 시드니의 크리켓 그라운드에서 열린 201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정규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승리투수가 됐다.

이 경기에서 류현진은 5이닝 동안 87개의 공을 던져 안타 2개와 볼넷 1개만 내주는 깔끔한 투구로 승리를 거뒀다. 날카로운 직구와 상대의 허를 찌르는 변화구로 탈삼진 5개를 잡으며 애리조나 타선을 꽁꽁 묶었다.

타석에서도 류현진은 활약을 이어갔다. 3회초 시즌 첫 타석에서 중전 안타를 날려 2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류현진은 1회 징크스를 깨고 초반부터 순조롭게 경기를 풀었다. 3회에는 삼자 범퇴로 애리조나 타선을 침묵시켰다.

이날 다저스 타선은 1회초 공격에서 선취점을 뽑고 류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야시엘 푸이그의 중전 안타와 아드리안 곤살레스의 볼넷으로 만든 2사 1, 2루에서 안드레 이디어가 1타점 적시타를 날렸다. 3회초 다저스는 추가점을 올렸다. 선두 타자로 나선 류현진이 애리조나 선발 트레버 케이힐을 중전안타로 두들기고 물꼬를 텄다. 디 고든의 2루타로 이어진 무사 2, 3루에서 푸이그의 좌전 안타가 나오면서 류현진은 득점을 올렸다. 이후 곤살레스의 희생타가 나오면서 다저스는 3-0을 만들었다. 다저스는 5회 2점, 6회와 7회 1점씩을 더하면서 7점 차까지 달아났다. 애리조나가 8회 1점을 따라붙었으니 승부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저스는 7-5 승리를 거두고 개막 2연승을 달렸다.

/정성문기자 jsw@metroseoul.co.kr

LA 다저스 류현진이 23일 호주 시드니 크리켓 그라운드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정규시즌 첫 선발 등판에서 호투를 펼치고 있다. 이날 류현진은 지난해에 비해 한층 더 완숙한 모습을 보이며 올 시즌 성공을 예감케 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 임창용마저…

### 윤석민 이어 마이너리그행

메이저리그에 재도전했던 임창용(38·사진)이 결국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엠엘비닷컴은 23일 "컵스가 (임창용을 포함한) 7명의 선수를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냈다"고 전했다. 7명의 선수엔 임창용이 포함돼 있었다. 임창용은 내야수 하비에르 바에스, 크리스 발라이카, 외야수 케이스 윌스, 투수 블레이크 파커·브라이언 슐리터, 조너선 산체스와 함께 마이너리그행을 통보받았다. 정규시즌을 앞두고 25인 로스터를 선별하는 과정인 것으로 보인다.

임창용은 초청선수 신분으로 메이저리그 캠프에 참가해 시범경기 4경기에서 4이닝 2피안타(1피홈런) 2실점 2볼넷 3탈삼진에 평균자책점 4.50을 기록했다.

컵스의 트리플A팀인 아이오와 컵스에서 기회를 엿볼 수도 있으나 임창용이 여러 차례 "더 이상 마이너리그 등판은 무의미하다"고 밝혀온 만큼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미국 내 다른 팀으로 이적하거나 일본이나 한국 프로야구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다. 다만 컵스가 이를 허락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정성문기자

## "이대호 활약에 팀도 들썩"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 4번 타자 이대호(32·사진)가 홈런을 포함해 드디어 방망이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팀도 들썩였다.

일본 스포츠닛폰은 23일 "이대호가 처음으로 대포를 선보이자 들썩였다"고 전했다. 이대호는 22일 후쿠오카 야후오크돔에서 열린 히로시마 도요카프와의 시범경기에서 4회말 좌월 투런 홈런을 치는 등 4타수 3안타 4타점으로 활약했다.

이대호는 이날 소프트뱅크 이적 후 첫 타점을 올리고, 첫 아치를 그렸다.

시범경기 타율은 0.225에서 0.273(44타수 12안타)으로 상승했다. 이대호의 활약에 동료도 신이 났다.

이대호 앞 타순(3번)에 위치한 우치카와 세이치는 "주자가 있을 때 굳이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편안해했고, 혼다 유이치는 "이대호는 잘 맞지 않을 때도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한다. 배우고 싶다"고 이대호에게 신뢰를 보냈다.

일본프로야구는 23일 시범경기를 마치고, 28일부터 정규시즌을 시작한다. /정성문기자

## 모비스 먼저 웃다

### 농구 4강 PO 1차전 SK 잡아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가 함지훈과 문태영의 활약에 힘입어 4강 플레이오프(5전3선승제) 1차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유재학 감독이 이끄는 모비스는 23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4강 플레이오프 프로농구 서울 SK와의 경기에서 71-62로 승리했다.

3쿼터 한때 점수 차가 23점이나 벌어질 정도로 모비스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6강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체력이 바닥난 SK는 예상보다 맥을 못 췄다. 지난해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 올해 정규리그에서 서울 SK와 우승을 놓고 각축을 벌였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함지훈은 3점슛 1개를 포함해 11점을 올리고 4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문태영과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 두 팀의 2차전은 25일 울산에서 열린다. /정성문기자

**프로농구 PO 전적** 23일

| | | | | | |
|---|---|---|---|---|---|
| 모비스 | 18 | 25 | 13 | 5 | 71 |
| SK | 12 | 14 | 19 | 17 | 62 |

**프로축구 전적** 23일

| | | | |
|---|---|---|---|
| 부산 | 1 | 0 | 서울 |
| 득점 | 임상협(2·전7분·부산) | | |
| 광주 | 0 | 0 | 안양 |
| 울산 | 3 | 0 | 인천 |
| 득점 | 김신욱(3·전5분) 한상운(1·전39분) 하피냐(1·후10분·이상 울산) | | |

## 아가메즈·문성민 46점 합작

### 현대캐피탈 배구 PO 2차전서 대한항공 잡고 4년만에 챔프행

남자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이 4년 만에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다.

현대캐피탈은 23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3~2014 V리그' 플레이오프(3전2선승제) 2차전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리버맨 아가메즈(29점)와 문성민(17점)의 활약에 힘입어 세트스코어 3-1(25-22, 25-27, 25-20, 25-19)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플레이오프 2연승을 내달린 현대캐피탈은 4년 만에 챔피언결정전 진출을 확정 지었다. 현대캐피탈은 오는 26일 대전에서 벌어지는 삼성화재와의 챔프전 1차전으로 2007년 이후 7년 만의 우승에 도전한다.

반면 대한항공은 창단 첫 우승이 또다시 무산됐다. 대한항공이 챔프전에 오르지 못한 것은 4년 만이다. /정성문기자

23일 오후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NH농협 V리그 프로배구 남자부 플레이오프 2차전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의 경기에서 현대캐피탈 리버맨 아가메즈가 득점 후 동료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프로배구 PO 전적** 23일

| | | | |
|---|---|---|---|
| 대한항공 | 1 | 3 | 현대캐피탈 |

## 손연재 월드컵 개인종합 7위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0·연세대·사진)가 2014시즌 처음으로 나선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월드컵인 슈투트가르트 월드컵에서 개인종합 7위에 올랐다.

손연재는 23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대회 첫날 개인종합에서 후프(17.700점), 볼(17.566점), 곤봉(16.216점), 리본(17.433점) 합계 68.915점을 받았다. 손연재는 1위 야나 쿠드랍체바(러시아·74.748점)에게 5.833점 뒤진 7위에 자리했다. 2, 3위는 마르가리타 마문과 마리야 티토바에게 돌아가 러시아 선수가 1~3위를 모두 차지했다.

지난달 시즌 첫 대회인 모스크바 그랑프리에서 개인종합 6위에 오르고 후프, 곤봉, 리본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손연재는 시즌 첫 월드컵인 이번 대회에서 다소 저조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회에 함께 나선 김윤희(23·인천시청)는 볼(16.116점), 후프(15.366점), 리본(16.416점), 곤봉(14.950점) 합계 62.848점을 받아 22위에 올랐다. /정성문기자